



빛처럼 음악처럼 즐긴다

조명과 음악의 조화 돋보인 서울배움터 축제



▲17일(목) 진행된 '락 페스티벌'을 즐기고 있는 학생들.

서울배움터 봄 대동제가 지난 16일(수)부터 18일(금)까지 성황리에 개최됐다. '빛처럼 음악처럼'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대동제는 아름다운 조명과 주제에 맞는 장식품들이 학교 구석구석에 장식돼

있어 축제 분위기를 한껏 더했다. 또한 이번 대동제는 기존 축제공연이 소모임과 동아리별로 진행된 것과 달리 △세계 음악 축제 △락 페스티벌 △하나 되는 음악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도서관 앞에서는 대동제기간 내 진행된 네일아트와 헤어 메이크업을 무료로 해주는 행사가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전수연(영어·영문 10)양은 "시간이 없어서 손톱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는데 이런 행사가 진행돼 반가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운동장에서는 △중국어대 △일본어대 △몽양어대 △서양어대에 속해있는 20여개의 과들이 참여한 월드빌리지를 통해 각 나라의 전통음식과

문화를 느낄 수 있었다. 또한 △미끄럼틀 △미니 바이킹 △오락실 펀치기 등이 설치돼 이번 축제의 즐거움을 더했다. 특히 운동장에 마련된 무대에서는 축제 기간 내 유명가수인 김장훈과 걸스데이를 비롯하여 △로맨틱펀치 △갤럭시익스프레스 △바이바이배드맨 등의 인디밴드공연과 우리학교 중앙동아리 △도비 △노래나라 △외인부대의 공연이 진행돼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즐거운 볼거리를 제공했다. 노천극장 무대에서는 16일(수)에 새로미 OX퀴즈가, 18일(금) 총학생회와 함께하는 취중진담 토크쇼와 피파온라인 2 결승전이 진행됐다. 이외에도 본관 앞에서 진행된 유명 비보이그룹 인라스트 포원의 비보이 공연과 운동장 무대에서 진행된 미스터 외대는 많은 학생들의 관심을 받았다. 미니버스도 지난 번 축제와 달리 노천극장에서 외대앞역까지 노선을 연장하여 운행했다. 정상혁(서양어·프랑스어 09) 서울배움터 총학생회장은 "학생회가 이번 축제를 열심히 준비한 만큼 학생들의 반응이 좋은 것 같다"며 소감을 전했다.

홍규원 기자 84kwhong@hufs.ac.kr

학교에서 시작하는 취업준비!

글로벌캠퍼스, 취업특강 열려

이번 달 15일(화)부터 다음 달 8일(금)까지 글로벌 캠퍼스에서 취업특강이 진행된다. 경력개발센터 주최로 진행되는 이번 특강은 전체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채용시장 상황과 취업현실을 소개하고, 자기주도적 취업전략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강은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의 공학관 207호에서, 금요일은 도서관 3층의 세미나실에서 실시되며 오후 3시 30분부터 6시까지 진행된다. 또한 학

과별로 일정이 나뉘어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타과 일정에 참석할 수 있다.

특강은 박재성 경력개발센터 팀장의 학년별 취업 전략에 대한 간략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김세준 한국생산성본부 전임강사의 취업에 대한 다양한 주제로 진행된다. 교육주제로는 △Spec? 역량? △기업의 고민을 이해하라 △인적성검사 대비를 위한 마인드 함양 △실무능력 강화가 있다. 김세준 한국생

산성본부 전임강사는 "면접에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해선 항상 철저한 말하기 준비가 필요하다"고 스피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계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기업들에게 미래지향적인 컨설팅기법과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개발하여 보급해주고 있다. 취업특강에 참석한 이정민(경상·국제경영 11)양은 "면접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를 들 수 있었다"며 "취업준비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최호성 글로벌캠퍼스 경력개발센터장은 "이번 특강을 통해 취업시장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평소에도 경력개발센터를 자주 이용해 미리미리 준비하길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우보연 기자 84omg@hufs.ac.kr

취업특강 일정

학과	일자	장소
영어학부/우크라이나어	5. 22(화)	공학관 207호
스페인어/이탈리아어/아랍어	5. 23(수)	
중국어/일본어/마인어	5. 24(목)	
노어/폴란드어/루마니아어/태국어	5. 25(금)	도서관 3층 세미나실
체코어/헝가리어/세르비아어/독일어	5. 29(화)	공학관 207호
프랑스어/포르투갈어/그물어	5. 30(수)	
아프리카/인도어/중앙아시아어/국스레	5. 31(목)	
수학/전자물리/화학/정보통신	6. 5(화)	도서관 3층 세미나실
환경/생명공학/통계	6. 7(목)	
컴/공/다-정/산업경영	6. 8(금)	

지면안내

4 보장받지 못하는 법대생의 수업권

6 사진으로 보는 Hufestival

7 시작해 볼까, 운동?

8 돌아온 블랙코미디, 칠수와 만수



과속유불급 (過速猶不及)

빠른 속도는 느린 속도만 못합니다



빈 의자

국·부장 고정칼럼

삶의 '디아블로' 를 마주할 때

▲이번 달 15일(화)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의 액션롤플레이 게임인 '디아블로 3'가 전 세계에서 동시에 출시됐다. 디아블로 3는 몇 년 전부터 인터넷상에서 우스갯소리로 유로 2012, 런던올림픽과 함께 '3대 수능브레이크'로 불리며 슬한 화제와 기대를 불러 일으켰다. 출시 이틀 전인 13일(일)부터 디아블로3 한정판 판매가 이뤄지는 행사장인 왕십리역 앞 광장은 게임 마니아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그들은 한정판을 갖기 위해 노숙까지 불사했다. 각종 언론에서는 게임 팬들의 말을 빌려 '악마의 게임이 출시됐다'며 이런 진귀한 현상을 보도하기도 했다. 디아블로3는 출시된 지 3일째인 지난 17일(목) 국내 PC방 점유율 1위를 기록하며 그 인기를 증명하고 있다.

▲디아블로의 이러한 선풍적인 인기에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그 중 가장 손꼽히

는 것은 바로 게임 자체의 단순함이라고 한다. 즐거리 자체도 간단하다. 세상을 타락시키려는 악마로부터 성역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그렸다. 복잡한 키 조작이 필요하지 않고 마우스 하나만 있으면 게임을 할 수 있다. 다른 게임들처럼 복잡한 전략과 전술을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게이머들 사이에서는 속된 말로 '노가다' 게임이라고 불린다. 스토리 라인을 따라 가다보면 그 위력적인 중독성에 어느새 결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복잡다단'하다는 말로 대표할 수 있는 현대 사회에서 최신 게임답지 않은 단순함이 인기의 비결이구나. 이런 단순함으로 어쩌면 우리가 지고 있는 '악마'도 물리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누구나 스스로를 괴롭히는 '악마' 하나 혹은 그 이상씩과 함께 살고 있다. 그 악마는 개개인

이 느끼는 고민과 격정으로 둔갑해 끝없이 머릿속을 떠돌며 우리를 괴롭힌다. 이런 악마와 마주했을 때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다. 맞서 싸우거나 혹은 피하거나. 어떤 쪽을 선택해도 힘든 것은 마찬가지다. 싸우기로 결정하고 치밀하게 전략을 세워 문제의 원인에 접근하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은 문제 해결의 벽에 부딪히는 경우도 많고, 피하기로 결정하고 아무리 외면해도 악마의 그림자는 거머리처럼 따라 붙는다. 그럴 때에는 복잡한 접근보다 '디아블로'에서 악마를 물리치는 것 같은 단순함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눈에 보이는 대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복잡하게 머리 쓰지도 말고 문제에 접근해보자. 그것이 마음속의 악마를 몰아내고 '성역'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조인우 부장

학내 브리핑

양배움터, 이중전공 신청받아

이번 달 21일(월)부터 25일(금)까지 2학년 이상 재학 중인 07학번 이후의 학생들에 한해 다음 학기 이중전공 배정을 신청 받는다. 서울배움터 11학번 학생들은 학교 홈페이지 내 종합정보시스템에서, 10학번 이전의 학생들은 학사종합지원센터(역사관 101호)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글로벌캠퍼스의 학생들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받는다. 이중전공 배정 확정자는 올해 7월 중순 이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될 예정이다.

여름방학 국제학사생 신청접수중

이번 달 14일(월)부터 28일(월)까지 여름방학 중 서울배움터 국제학사에 입사할 학생을 모집한다. 입사를 원하는 학생들은 학교 홈페이지의 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입사 신청서를 작성, 저장하면 된다. 서울배움터 학생을 우선 선발할 후 공석이 있는 경우 글로벌캠퍼스 학생들을 선발할 예정이다. 합격자는 다음 달 1일(금) 종합정보시스템 및 국제학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단기 입사생은 다음 달 18일(월)부터 7월 8일(일)까지 거주 가능하며, 장기 거주를 신청하면 8월 25일(토) 9주간 생활할 수 있다.

여름방학, 국제여름학기로 알차게

이번 달 31일(수)까지 국제여름학기 수강신청을 받는다. 국제여름학기는 2003년 이후 매년 여름방학기간에 진행되는 세계 유명 교수들의 강의 및 외국인 교환학생들과의 문화교류 기회 제공의 프로그램이다. 수강 교과목은 우리학교 교양학점으로 인정되며 일부 교과목은 학과에 따라 전공학점으로 대체 가능하다. 국제여름학기를 수강한 학생들에게는 우리학교 영미권 교환학생 프로그램 지원시 소정의 가산점을 부여하며 성적우수자로 선정된 1명의 학생에게는 7+1 해외파견 장학금을 지급한다. 수업은 7월 11일(수)부터 8월 10(금)까지 약 5주간 진행되며 수강료는 90만원이다. 수강신청은 국제여름학기 홈페이지(http://summer.hufs.ac.kr)에서 하면 된다.

만평 서상아 19

사채업자 '깍기' 서민 희망도 깎는다.



교내 교통사고 잇달아

교통안전의식 재고 필요

글로벌캠퍼스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달 30일(월) 글로벌캠퍼스 학생회관에서 어문학관으로 가는 길에서 오토바이와 보행자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시속 약 40km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학생이 길을 건너는 학생을 보지 못하고 직진해 충돌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이 사고는 다행히 양쪽 다 경미한 타박상을 입는 것에 그쳤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 달 10일(목)에도 학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정심대도에서 국제사회교육원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오토바이와 자동차가 충돌한 것이다. 당시 오토바이에는 두 명의 학생들

이 타고 있었다. 이 사고로 뒤에 타고 있던 여학생이 떨어져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큰 부상을 입었다.

글로벌캠퍼스는 학교부지가 넓은 특성상 오토바이 및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다. 하지만 교내 주행속도인 30km를 지키지 않고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는 등 교통안전 의식의 부족이 학내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최태경 학생감동팀 팀장은 "오토바이의 경우 함께 탑승한 동승자까지 안전장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통제 규범이 아직 없기 때문에 "오토바이와 승용차를 운전하는 학생들 개개인이 학내에서 적절한 운전속도를 유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글로벌캠퍼스 총학생회는 교통 안전을 위해 온라인과 대자보를 통한 헬멧착용 캠페인을 준비 중이다. 앞으로 "학우들의 안전을 위해 해결책들을 계속 강구하겠다"는 이현성(통번역·아랍어 07) 총학생회장은 "오토바이뿐 아니라 일반 승용차량도 교내에서는 저속 주행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이런 학내 교통사고에 대해 이하은(인문·언어인지 12)양은 "학교가 넓어 운전자와 보행자간에 아슬아슬한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며 "운전자 뿐 아니라 보행자도 차를 조심하고 주위를 살펴 길을 건너는 등 안전의식을 가져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전했다. 문내윤 기자 84beginning@hufs.ac.kr

홈스돔, 글로벌캠퍼스 신기숙사 새 이름 생겨



▲ 이현환 글로벌캠퍼스 부총장(우측에서 네번째)과 강기훈 글로벌캠퍼스 행정지원처장, 전용갑 모현학사장과 이창근 모현학사 운영팀장 및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달 15일(화), 글로벌캠퍼스 본관 210호 부총장실에서 글로벌캠퍼스 신 기숙사 명칭공모전 시상식이 열렸다.

이번 공모전으로 최종 선정된 기숙사 대표명은 홈스돔(HUFS Dom)이다. 각 동별 명칭은 학교의 교훈을 영어식으로 표현했다. △진리라는 뜻의 A동 베리타스(Veritas) △평화라는 의미를 지닌 B동 파스(Pax

△창조라는 뜻의 C동 크레아티오(Creatio) △식사동 가운플라자(Gaon Plaza) △외국인교수동 오르비스(Orbis)로 명명됐다. 기숙사생에 한해 모집을 받은 이번 공모전의 시상식은 기숙사 대표 명칭과 동별 명칭으로 나눠져 진행됐다. 대표명칭에는 1등 선정 없이 한철우(통번역·스페인어 08) 외 7명이 수상했다. 김한솔(어문·포르투갈

어 11) 외 15명은 동별 명칭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또 각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금이 전달됐다. 한철우군은 "장소나 공간을 뜻하는 라틴어 어미인 -ium을 붙여 기숙사 명칭을 홈시움(Hufsium)이라 지어 공모했다"며 "모두 함께 쓰는 기숙사의 이름을 지어 수상해 기쁘다"는 소감을 전했다. 문내윤 기자 84beginning@hufs.ac.kr

우리학교 한국어문화교육원 한글연수 진행

우리학교 한국어문화교육원이 한글 교육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인도네시아 바우바우시 교사와 중국지역 조선어교원을 초청해 한국어 연수를 진행한다.

바우바우시 교사의 한국어 연수는 6월 18일(월)부터 8월 10일(금)까지 총 8주 동안 서울배움터에서, 중국지역 조선어교원 연수는 7월 16일(월)부터 30(월)까지 글로벌캠퍼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의 바우바우시 교사 초청은 세계 최초로 표기 문자를 한글로 채택한 인도네시아 짜아짜아족의 한글 교육을 돕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시행한다. 교육 내용에는 △한글의 창제 원리 △효과적인 한글 교수법 △초급 한국어 △한국의 역사와 문화 등이 포함됐다.

중국지역 조선어교원 초청 연수는 우리학교 한국어문화교육원이 지난 3월 재외동포재단에서 주관하는 사업의 실행자로 선정돼 시행하게 됐다. 한국어문화교육원은 이번 연수를 통해 중국 지역 조선족 학교의 조선어 교사 50명을 대상으로 한글을 재교육해 한국어 교육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초청연수에서는 △한국의 최신 교수법 교육 △한국의 교육 현황 소개 △한국의 문화 체험 및 실습 등을 교육한다.

한편, 한국어문화교육원은 한국어세계화재단 주최 세종학당 교원양성 3기 초청연수의 사업기관으로 선정돼 세종학당 교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로써 세종학당 교원들은 8월 10일(금)부터 19일(일)까지 10일간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한 후, 8월 20일(월)부터 3일간 열리는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에 참여하게 된다. 홍규원 기자 84kwong@hufs.ac.kr



자연, 에너지, 사람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제 자연을 위한 친환경에너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태양, 물, 수력 등 자연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연료전지 발전사업에 함께 할 때는 POSCO에너지. 새로운 녹색전력을 이끌어 내고, 자연이 품어 주는 친환경 내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새로움이 에너지가 되는 세상
POSCO
포스코에너지

POSCO에너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2, 12층 | 대표전화: 02-550-0100 | 홈페이지: www.pocoe.com

동(Dorm)메이트 모여라!

양 배움터 기숙사 축제를 가다

◆ 맛있는 야식과 공연!

축제 시즌의 첫 타자, 글로벌비움 축제

축제와 행사의 달 5월, 서울배움터 국제학사가 본격적인 학교 축제기간의 시작을 알렸다. 이번 국제학사 축제는 '최고의 야식을 찾아라'는 테마 아래 지난 14일(월) 국제학사 1층 글로벌비움테리아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기숙사에 거주하는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 외에도 특별히 △기숙사 시설 관리직원 △공익근무요원 △기숙사 식당 영양사 선생님 등의 기숙사 구성원들도 참가했다.

교내 락밴드 '외인부대'의 축하무대를 시작으로 한 국제학사 축제는 기숙사 구성원들의 장기자랑 무대로 이어졌다. 공연 중간 중간에 퀴즈 대회 등의 다양한 게임이 마련돼 많은 학생들이 축제를 즐겼다. 또한, 사생들에게는 △치킨 △피자 △떡볶이 △순대 등 평소 기숙사생들이 즐겨찾는 야식들이 무료로 제공됐다. 공연 무대를 보던 양금정(영어·영통 11) 양은 "맛있는



▲ "맥주 빨리 마시기 대회, 시~작!" 골칫골칫 소리가 무대를 가득 채우고 있다.

간식거리와 풍성한 볼거리가 더해져 기대 이상의 기숙사 축제가 된 것 같다"며 "특히나 평소 우리가 편하게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구성원 분들이 함께하여 의미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축제를 기획한 사생회장 김태훈(상경·국통 07) 군은 "기숙사 시설

관리직원, 공익근무요원 분들은 학생들이 기숙사에 살면서 항상 마주치는 분들이다. 이웃사촌 간 인사라도 하고 지내자는 취지에서 화합의 장을 마련하게 됐다"며 "행사 끝까지 남아있던 학생이 많았고 준비된 프로그램마다 반응도 뜨거웠기에 만족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 기숙사에 슈퍼스타가 떴다!

5월을 뜨겁게 달군 청량제

글로벌캠퍼스 기숙사 축제인 청량제가 'The First Party'라는 슬로건 아래 15일(화)부터 16일(수) 이틀 간 열렸다. 신기숙사 잔디밭을 중심으로 설치된 천막에서는 낮 동안 △피자 시식 △무료 네일아트 △쿠키 만들기 △구두 굽 교체 △노트북 청소 △음료 시음 등의 행사가 열렸다. 축제 1일차인 15일(화)에 이현환 글로벌캠퍼스 부총장을 비롯한 교수진과 기숙사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개막식이 거행됐다. 또 저녁부터 새벽까지 주점이 열려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16일(수) 저녁에 열린 '슈퍼스타 H'였다. 기숙사 식당에 설치된 특별 무대에서 총 6팀이 감춰왔던 기량을 맘껏 뽐냈다. 이들을 응원하기 위해 모인 수 백 여명의 관객들은 뜨거운 호응으로 화답했다. 문자 투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뤄진 심사 결과, 이윤주(어문·포르투갈어 09)양이 최후의 1인으로 뽑혔다. 그는 "많이



▲ 글로벌캠퍼스의 슈퍼스타는 누구? 긴장되는 발표 순간!

긴장했지만 같은 학과 친구들이 응원해 줘서 힘이 났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윤주양에게는 현금 30만원과 닥터드레 이어폰이 수여됐다. 한편 슈퍼스타 H가 끝난 후 열린 클럽파티 또한 뜨거운 반응을 얻으며 행사의 대미를 장식했다.

축제를 기획한 총사생회장 이종원(통번역·이탈리아어 07)군은 "신 기

숙사가 지어진 후 처음 열린 기숙사 축제라 어려움이 따랐지만 적극적으로 따라준 간부들과 자원봉사단 덕분에 큰 사고 없이 잘 마무리 됐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학생들에게 감사하다"며 "이번 행사로 화합의 장이 마련되었고 애교심도 높일 수 있어서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서상아 기자 82seosanga@hufs.ac.kr

글로벌리그, 우승컵은 수학과에게

학과의 자존심을 건 대결, 글로벌리그가 이번 달 18일(금) 막을 내렸다. 종합우승의 영예는 45점을 획득한 수학과에게 돌아갔다. 그 뒤는 생명공학과가 40점으로 5점이라는 근소한 차이로 종합준우승을, 산업경영공학과가 32점으로 종합 3위를 거머쥐었다. 글로벌리그는 왕산체전의 새로운 이름으로 이번 달 1일(화)부터 18일(금)까지 진행됐다.

총 41개 학과가 참여했던 글로벌리그에서는 종목별로 △축구 우승 : 국제스포츠레저학부, 준우승 : 영어통번역학과 △축구 우승 : 포르투갈어과, 준우승 : 노어과 △농구 우승 : 생명공학과, 준우승 : 스페인어통번역학과 △피구 우승 : 아프리카학부, 준우승 : 산업경영공학과 △발야구 우승 : 수학과, 준우승 : 전자공학과가 순위를 기록했다. 종합우승을 차지한 윤선용(자연·수학 08) 수학과 회장은 "우승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단결이라

고 생각한다"며 "열심히 달려준 학과생들에게 고맙다"고 기쁨의 소감을 말했다. 종합준우승을 차지한 이선배(자연·생명공학 08) 생명공학과 회장은 "종합우승이 코앞인데 하는 아쉬운 감이 있지만 종합준우승으로도 만족한다"며 "다음 해엔 꼭 종합우승을 하겠다"고 다음 해를 기약했다. 또한 공정한 경기를 펼쳤던 전자공학과는 페이플레이 상을 받았다.

한편 일부에서는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부상에 대한 응급처치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대해 글로벌리그를 총괄한 정창민(국스레 08) 중앙집행장위원장은 "심판들은 비상약을 상비했으며 부상소식이 들리면 바로 구급차를 불렀다"고 답했다. 이어 "약 3주라는 다소 긴 기간 동안 글로벌리그가 진행됐는데 학생들이 잘 따라준 것 같다"며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우보연 기자 84omg@hufs.ac.kr

비인기 종목 핸드볼? 무슨소리!

서울배움터 핸드볼 대회 성황리 진행돼



▲ 이란어과와 베트남어과의 준결승 경기가 진행중이다.

서울배움터에서 동문기쟁탈배 핸드볼 대회가 지난 14일(월)부터 18일(금)까지 운동장 한켠에서 열렸다. 이번 핸드볼 대회는 장소가 협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의 관심을 받았다. 총 19개의 과가 참가한 이번 대회에는 남자부에서는 △태국어과 △베트남어과 △독일어교육과 △일본어과가 여자부에서는 △자유전공 △몽골어과 △이란어과 △베트남어과가 4강에 진출해 우승컵을 두고 경쟁을 벌였다.

결국 결승전에서 남자부는 태국어과가 독일어교육과를 8:6으로 여자부에서는

자유전공학과가 이란어과를 5:1로 승리를 거두며 우승을 차지했다. 결승전에 이어 시상식에서는 △우승팀 △준우승팀 △3등팀에게 상패 및 소정의 상금이 수여됐다.

핸드볼팀 주장 주성현(동양어·태국어 07)군은 "43회까지 동문기쟁탈배 핸드볼 대회가 이어질 수 있도록 후원해주신 핸드볼부의 동기 및 선배들에게 감사드리며 많은 학생들의 관심으로 대회가 무사히 마무리 돼서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홍규원 기자 84kwhong@hufs.ac.kr

외대를 만나면 시너지가 생긴다 | Unique & Best

http://press.hufs.ac.kr

中国通 이 되기 위한 필독서!

중국어 실력을 향상시킬 특별한 스킬을 가져라!



초급 중국어 회화편 중국어대학 | 초급 중국어 독해편 중국어대학 | 실용 중국어 I 중국어대학 | 실용 중국어 II 중국어대학 | 중국어교육 입문 유재원 외 | 초급 중국어 회화 중국어대학 | 중급 중국어 회화 중국어대학 | 현대 중국어 10문형 50구문 김중호 | 기초 시사 중국어 강준영 | 해설 시사 중국어 강준영 | 문형으로 배우는 중국어 독해(심화편) 최재영 외 | 중국어 통역, 나도 해볼까! 문영란

http://www.facebook.com/hufspress | http://twitter/hufspress
130-79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Tel : 02-2173-2495~7 Fax : 02-2173-3363 email : press@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PRESS CENTER

법대는 사라져도 법대생은 남는다...법대생 수업권 보장해야

2007년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에 관한 법안이 타결됐다. 2009년 로스쿨이 개원되고 법과대학(이하 법대)은 2008년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신입생을 받지 않게 됐다. 그렇게 법대의 '만년 새내기'가 된 08학번, 그들이 입학한지 4년이 지난 지금, 사라질 법대를 지키는 법대생은 안녕한지 알아보았다. **편집자주**

◆ 80개→26개, 눈에 띄는 감소세

2008학년도 1학기 법대 전공과목은 모두 80개였다. 하지만 이번 해는 50개가 넘게 줄어든 숫자인 26개가 전공과목으로 개설됐다. 분반됐던 강좌가 하나로 축소되거나 서로 다른 강좌들이 통합됐고, 올해부터 1학년은 대상으로 한 전공강좌가 개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입생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강좌 수가 감소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하지만 강의

를 듣고자 하는 학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재수강을 원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이다. 일부과목에 한해 교양강의 또는 부전공으로 개설된 강의를 전공으로 인정하는 등 학생들의 편의를 봐주고는 있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이신종(법·법 04)군은 "후배들이 재수강을 못해서 학점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많이 보았다"며 "지난해 졸업이수학점이 조정됐으나 여전히 높은 편이고, 강좌 선택 폭도 좁아져 졸업하기 위해서는 개설된 전공과목을 대부분 들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른 학과에 비해 졸업이수학점이 72학점으로 높기 때문이다.

한주옥(법·법 08) 법대 학생회장은 "모든 폐지과목에 대응하는 대체과목이 마련된 것이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계획 없이 갑자기 과목이 대체되거나 통합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13학년도에는 2학년 △2014학년도에는 3학년 △2015학년도에는 4학년 과목이 차례로 폐지될 예정이지만 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지되지 않아 학생들이 향후 수강 계획을 짜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 학생회장은 "학교에서 재수강을 계속 열어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법대 학생회에

◆ 전임교수님 보기 힘들어요

서 매학기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강좌의 개설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임교수가 학부강의를 담당하는 경우가 줄고 있는 점도 학생들 사이에서 문제로 지적된다. 이신종군은 "1, 2학년 때는 전공과목을 전임교수님이 담당하는 것이 당연했는데 지금은 학부보다 로스쿨 강의를 주로 맡으신다"고 말했다. 로스쿨 인가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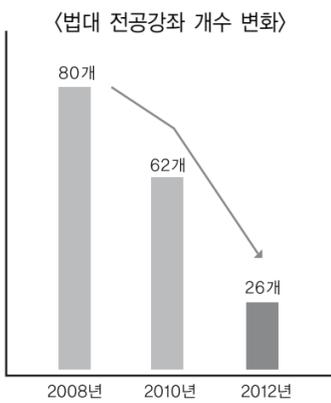
관한 법안에 따르면 각 대학이 로스쿨 설립을 인가받기 위해서는 법대에서 개설된 강의의 50% 이상을 전임교수가 맡아야 한다. 이는 로스쿨 때문에 뒷전이 될 수도 있는 법대 학부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건이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각 전임교수 당 강의의 시간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어 위의 조건을 지킬 경우 로스쿨 수업과 법대 학부 수업을 병행하는데 현실적으

로 어려움이 있다. 이에 대해 김성규 법대 학과장은 "로스쿨 평가 기준에 전임교수 당 강의시수가 포함되기 때문에 한 명의 교수가 무리해서 많은 수업을 맡을 수 없다"고 말했다. 분반으로 운영되던 강의들이 하나로 합쳐진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학부 수업의 수 자체를 줄여 규정 비율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로스쿨을 평가하는 기준 중 하나인 '강의 적합도' 항목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입장이다. '강의 적합도'에서는 교수가 해당 수업과 맞는 △연구실적 △강의 경력 △외부 실적을 충족하는지 평가한다. 김 학과장은 "현재 로스쿨의 강의 적합도를 만족하는 교수님들이 대체로 전임교수 직에 있다"며 "외부강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 때문에 전임교원이 로스쿨 수업을 담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형식적인 로스쿨 인가 조건을 맞추기 위해 전임교원에게 적합하지 않은 수업을 맡기면 오히려 학부생의 교육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에 어긋날 수도 있다"며 단순한 수업시수보다 수업의 질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대부분의 법대 전임 교수들이 방학 때도 거의 쉬는 날 없이 수업을 한다"며 "교원이 확충되면 좋겠지만 그것은 우리대학만의 요구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고집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신입생도 없고 학과 자체가 폐지되는 위태로운 분위기에 놓여 있지만 법대의 구성원 중 하나인 학생들의 이해와 양보를 바란다는 것이다. 계속해서 재수강을 보장하고 당장 전임교수를 확충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이해



“수업 선택의 폭은 좁고 졸업이수학점은 높아”

6·25 참전용사 후손 장학금 전달식 열려

이번 달 11일(금) 서울배움터 총장실에서 애경복지재단 후원의 6·25참전용사 후손 장학금 전달식이 열렸다. 전달식에는 장영신 애경복지재단 이사장을 대신해 백차현 애경복지재단 상무가 장학금 3000만원을 기탁했다. 이 장학 사업은 6·25 참전국 후손 중 선발된 우수한 학생에게 우리학교에서 학습할 기회를 제공해 국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로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해 프로그램 대상학생으로 △미국 △네덜란드 △에티오피아 등에서 선발된 21명이 지원받았고, 이번 해는 캐나다, 남아공 등에서 13명이 추가로 선발돼 총 34명이 우리학교에서 수학하고 있다. 선발된 장학생들은 △한국어 연수비 △



학위과정 학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받는다. 장학금으로 한국어연수를 마치고 이번 해 대학원에 진학하는 탄야틴 부어팬(Buaphan Tanyatom)(대학원·문화콘텐츠학 12)양은 "태국과는 달리 한국은 문화콘텐츠 부분이 발달했다"며 "장학금 덕분에 한국에서 더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2010년부

터 우리학교는 국가보훈처, 한국전쟁기념재단과 손잡고 주한 각국 대사관, 현지 국가 한국대사관을 통해 학생 유치활동을 진행해왔다. 박철 총장은 "우리 학교는 유일하게 참전국의 언어학과가 대부분 개설돼 있어 선발된 학생들이 어렵지 않게 수학할 수 있다"며 "학생들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격려했다.

이 날 전달식에는 △정경원 대외부총장 △장태열 대외협력처장 △백차현 애경그룹 상무 △강석식 수원에경영역사 상무 △김영근 차장이 참석했다. 이번 기탁을 포함해 애경복지재단은 지금까지 우리학교에 발전기금으로 총 일억 오천만 원을 기부했다.

우보연 기자 84omg@hufs.ac.kr

오바마 대통령 방문기념 공모전 당선작 발표돼

지난 18일(금) 오바마 대통령의 방문을 기념해 열린 공모전의 당선작 시상식이 있었다. △'오바마' 한글 3행시 △'OBAMA' 영어 5행시 △오바마 대통령에게 쓰는 편지 각 세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 이번 공모전은 지난 4월 11일(수)부터 25일(수)까지 작품 응모를 받았다.

각 부문에서 △1위 1명 △2위 2명 △3위 2명씩으로 총 15명의 학생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특히 편지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한 학생에게는 미국 왕복 항공권을 포함한 여행 경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이 외의 당선자들은 등수 별로 상금을 받았다.

편지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한 강민지(사범·영교 12)양은 "마감하기 하루 전날 공모전 소식을 우연히 알게 돼 참여하게 됐는데 이런 기회가 주어지

다니 믿을 수 없었다"며 "오바마 대통령 연설을 눈앞에서 봤던 것만큼이나 영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은수 84euneun@hufs.ac.kr

심행시 부문 1위 - 「글로벌 대학교」

오 - 오라, 글로벌대학교 한국외대로
바 - 바쳐라, 세계를 향한 너의 꿈을
마 - 마주보자, 당당한 우리의 미래를
권순우(경영·경영 12)

오행시 부문 1위 - 「I am a HUFsan」

O - Ola, I speak Portuguese
B - Bonjour, I speak French
A - Ahalan, I speak Arabic
M - Merhaba, I speak Turkish
A - An-nyeong Ha sae yo, we are from HUFs
박준석(경영·경영 08)

한국어교사양성과정 28기 수강생 모집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KFL)

* 한국어문화교육원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아 한국어교육에 관심 있는 대학생 및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제 28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한국어교원 3급 자격취득 희망자 사전 이수 코스임)

1. 전형일정

구분	일시/기간	장소	비고
입학지원서 교부 (인터넷 작성)	2012. 06. 04(월) ~ 2012. 06. 15(금)	www.korean.ac.kr	
입학지원 및 서류제출	2012. 06. 04(월) ~ 2012. 06. 15(금) 17:00	한국어문화교육원 운영팀 (대학본부 7층 705호)	우편제출의 경우 2012. 06. 15(금) 도착분에 한함
서류전형	2012. 06. 18(월)~06.20(수)		
합격자 발표	2012. 06. 22(금) 14:00이후	www.korean.ac.kr	
합격자 등록	2012. 06. 22(금)~06.27(수)	납입방법은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함	

2. 모집인원 : 00명
3. 교육기간 : 2012. 07. 02(월) ~ 2012. 08. 03(금)
4. 수업요일 및 시간 : 월~금 09:30~17:30

5. 전형방법 : 서류전형

6. 전형료 및 교육비

가. 전형료 : 20,000원

* 전형료 수납방법

우리은행 계좌 (1005-401-105222 /예금주 : 한국외국어대학교)으로 무통장 입금 후 입학지원서 제출 시 입금표(복사본 가능) 함께 제출함 (반드시 본인 명의로 입금)

나. 교육비 : 1,365,000원

다. 입학금 : 50,000원

7. 제출서류 및 특전

* 본원 홈페이지 참조

8. 기타

가. 접수 기간 중 접수시간은 09:00~17:00, 토, 일요일은 휴무

나. 서류제출은 직접 접수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보낼 곳 우 130-79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원 운영팀 (대학본부 7층 705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어문화교육원으로 문의 바람

* (02) 2173-2259, cklace@hufs.ac.kr

부영이 통신



북아-미국



북아-미국



아시아-필리핀



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월마트에서 미카 크레이그(47)씨가 쇼핑을 하던 중 방울뱀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건의 발단은 정원 용품 판매 구역에서 시작됐다. 미카 크레이그씨는 막대기인 줄 알고 손을 뻗었는데 알고 보니 방울뱀이었던 것이다. 방울뱀을 안 즉시 그는 방울뱀을 그의 손에서 떼어내려고 노력했다. 방울뱀에 두 손가락을 물려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던 미카 크레이그는 근처에 있던 손님의 도움을 받아 즉시 병원으로 향했다. 사고의 소식을 들은 월마트 측에서는 현재 크레이그씨에게 사과했으며 방울뱀이 월마트내에 들어온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북아-미국



일명 투자의 귀재라고 여기는 워렌 버핏이 신문사에 투자한지 6개월 만에 또다시 신문사에 투자했다. 워렌 버핏은 그가 CEO로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주총회에서 신문사 추가 인수에 대한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워렌 버핏은 이번 달 17일(목) 미디어제너럴 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신문사들을 현금 1억4200만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버크셔 해서웨이는 미국 전역에 걸쳐 25개의 신문사를 갖게 됐다. 워렌 버핏은 그동안 신문사를 비롯한 여러 미디어부분에 높은 관심을 보여 왔다. 지난 해 12월에는 오마하 월드-헤럴드 신문을 올해 초에는 영화사와 MTV등을 자회사로 둔 비아콤의 주식을 사들이기도 했다.

북아-멕시코



필리핀과 중국이 두 나라 사이에 있는 작은 산호섬인 스카보라 섬을 두고 영유권 분쟁을 하고 있다. 중국과 필리핀은 스카보라 섬 부근 해역을 각각 '휴어기'와 '조업금지구역'으로 설정했다. 중국은 필리핀의 영유권 주장에 대해 필리핀의 농수산물에 규제를 가하고 필리핀으로 휴양하는 중국인들의 숫자를 줄이는 등의 강경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중국의 이런 조치에 대해 필리핀 민간인 6명이 스카보라 섬에서 직접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반대시위를 하는 등 필리핀과 중국 양 국가 간의 대립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아시아-이란



미국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가 여전히 '미얀마가 안보에 위협적이다'라는 이유로 미얀마에 대한 미국의 경제 제재를 연장했다. 미국의 경제 제재 내용에는 미국인들의 미얀마 현지의 투자와 미얀마 제품 수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군사정부에 가담하거나 연계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한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백악관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미얀마에서 일어나는 민주화운동은 지지하지만 미얀마 사람들의 인권과 미얀마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무력충돌에 관해서는 많은 우려가 남아있다고 밝혔다.



멕시코 내 한 고속도로 위에서 남자 43명 여자 6명으로 추정되는 시신 49구가 발견됐다. 발견된 시신들은 모두 참혹하게 절단되거나 훼손됐다. 지금 현재 멕시코에서는 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 발견된 시신들의 신원이 정확히 확인되지 못했다. 이는 시신의 훼손 정도가 심하여 DNA를 통한 신원파악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멕시코 현지 경찰은 시신 49구의 훼손을 마약깡단 간 보복 공격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미국으로 향하던 이민자들이 희생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란이 시리아에 여전히 무기 수출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시리아에 무기 수출을 금한다는 내용의 권고령을 어긴 것이다. 조사결과 이란은 지난 1년 동안 3차례 불법 무기 수출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된 3차례의 불법 무기 수출 중 2차례의 최종 목적지는 시리아였고, 나머지 한 번은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탈레반 조직에 수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란은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시리아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오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로 알려졌다.

정리·번역 홍규원 기자 84kwhong@hufs.ac.kr

흡산 인 더 월드 (hufsan in the world)

김영빈(사회·자전 10)

전쟁터도 사람 사는 곳이기에

△자스민 혁명의 물결 △터키의 가자지구 구호선 격침 △가자지구에서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 △남부 예일랏에서 발생한 버스 테러 △이란에 대한 네타냐후 총리의 선전포고... 이런 굵직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나는 이스라엘 북부의 하이파라는 도시에 있는 하이파 대학교와 이스라엘의 경제수도 텔아비브에 있는 히브리어 학교, 율판에 다니게 됐다.

내가 가장 처음 히브리어를 접한 계기는 우리학교의 교양과목인 '히브리어의 세계'였다. 이스라엘의 역사·문화·언어를 전반적으로 배우고 성서에서 봤던 이스라엘과 유대인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나에게 객관적이고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 준 고마운 강이었다. 그러던 찰나에 이스라엘에 왔으니 아랍어 말고 히브리어도 배워보자는 생각 끝에 흡스테이 아저씨가 추천해 주신 '율판 고든'이라는 곳에서 '새로운 이민자를 위한 히브리어 코스'를 듣게 됐다.

율판에서 처음으로 사귄 친구의 이름은 다니엘이다. 다니엘은 미국 태생의 유대인 친구였는데 이스라엘군 입대를 위해 18살에 이스라엘에 혼자 와서 히브리어를 배우고 있었다. 다니엘은 군복무를 마친 후 이스라엘 시민권을 받아 이곳에 정착하고 싶다고도 했다. 전쟁위험이 많은 탓에 가장 위험한 군 복무가 아닐 수 없다.



▲ 이스라엘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

그 동안 중동 분쟁의 시발점을 찾고 원인을 따지자면 당연히 이스라엘이 잘못된 거라고 쉽게 말하곤 했다. 하지만 다니엘을 만나고 나는 그 어느 쪽이 잘못했다고 갖대를 들이대기가 참 애매해졌다. 다니엘은 팔레스타인의 독립 투쟁 또한 많은 유대인 양민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이야기를 해줬다. 그 외에도 내가 아는 사람이 없어 듣지 못한 새로운 이야기도 해줬다. 사실 조금은 충격이었다.

한 번은 그에게 왜 이스라엘 시민이 되려고 하는지를 물었더니 이런 말을 했다. "나는 유대인이고, 우리나라와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떠나왔어. 왜냐면 이곳이 우리가 살아왔고, 살고 있고, 살아갈 땅이기 때문이야."

전쟁과 비극,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만들어 낸 당사자로 지목받는 유대인들이 모두 가해자만은 아니라는 점을 느꼈다. 물론 그들이 '빼앗은' 땅에 대한 과도한 집착, 외부인을 향한 불필요한 방어태세와 비인간적인 행태들은 잘못된 것이지만 말이다. 어느 한 쪽 시선에서만 바라볼 수 없는 복잡한 상황이 지속되는 이 땅에서 나는 설명할 수 없는 매력을 느꼈던 것 같다. 물론 그 곳에 평화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그리고 다니엘이 멋지게 군복무를 마칠 때까지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그가 몸 건강하기를 바랄 뿐이다.

살롱 이스라엘! 샬람 팔레스타인! 아이러니 하게도 이 두 언어의 인삿말 뜻은 '평화'이다.

흡스피킹 (Hufs+speaking)



▲ 학생식당에서 점심 먹기

A: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B: 아직이요, 같이 점심 드시겠어요?
A: 좋죠, 무엇을 먹을까요?
B: 저는 밥과 따뜻한 국을 먹고 싶어요.
A: 저도 한식이 먹고 싶어요.
B: 그럼 학생식당으로 갈까요?

독일어

A: Guten Tag! Haben Sie schon etwas gegessen?
구텐탁! 하벤 지 슨 예트바스 게게센?
B: Noch nicht. Wollen Sie mit mir Essen gehen?
노호 니히트, 볼렌 지 밀 미어 에센 게헨?
A: Ja, gerne. Was essen wir?
야, 게르네, 바스 에센 위어?
B: Ich möchte Reis und warme Suppe.
이히 뵘히체 라이스 운트 바르메 주페.
A: Ich möchte auch das koreanische Gericht.
이히 뵘히체 아우호 다스 코레아니체 게리히트.
B: Dann lass uns zur Mensa gehen.
단 라스 운스 주러 멘사 게헨.

단어장

식사	(das) Essen 에센
밥과 국	(der) Reis und (die) Suppe 라이스 운트 주페
한식	(die) Koreanische Küche 코레아니체
학생식당	(die) Mensa 멘사
먹다	essen 에센



카자흐스탄어

A: Сәлеметсізбе. Сыз тамақкедіңіз бе?
셀레멧스즈베, 스텔락케제움즈 베?
B: Әлі, бірге түскі тамағынжейміз бе?
알료, 브로게투스크타마근제이름즈 베?
A: Жаксы, кандай тамақтыжейміз?
작스, 칸다이타막제이름즈?
B: Менің күріш және жылы сорпаім келеді.
메농쿠리슈자네즐르소르파우쉬름제레드.
A: Менде Корея тамағынкегім келеді.
멘데 카레야 타마근제이름즈.
B: Ал студенттер асханасына барайык.
알 스텔멧테르아스하나스나바라이유.

단어장

식사	тамақ 타막
밥과 국	күріш, сорпа 쿠리슈, 소르파
한식	Корея тамағы 카레야 타막
학생식당	студенттер асханасы 스튜던테르아스하나
먹다	жеу, ісу 제우, 오슈



HUF Festival

이번 달 16일(수)부터 18일(금)까지 서울 배움터 대동제가 열렸다. 열정이 넘치는 그 현장을 카메라에 담았다.



▲ 전 세계가 한자리에!

전국을 다 뒤흔어도 우리학교밖에는 없는 '월드 빌리지'. 색색의 국기에 축제 분위기는 물론, 각 과가 준비한 국가 특색에 맞춘 간식거리에 침이 꿀꺽 넘어간다. 거기 헤매고 있는 학생들, 어느 국가로 떠나길 원하시나요?



손님몰이에 여념이 없는 학생들. 더운 날씨에 광고판까지 들고 다니는데도 티 한점 없이 맑은 웃음이다. 이정도로 자신 있게 손님을 모으는 건 그만큼 간식이 맛있다는 뜻이겠지? 아니나 다를까 이 학생들의 부스, 대박 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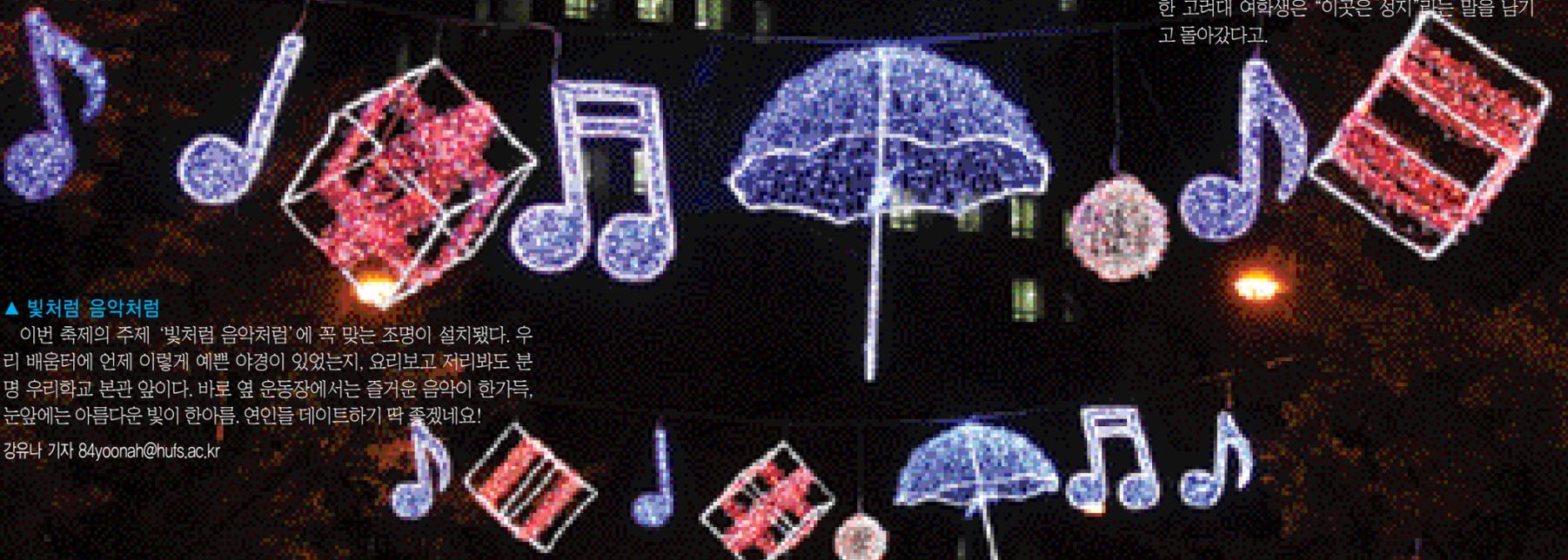


역시 축제하면 친구끼리, 연인끼리 남는 추억 그리고 그걸 증명할 사진이다. 배움터 한 복판을 점령한 커다란 풍선들 손짓에 학생들의 동심이 되살아났다. 예쁜 풍선과 함께 고운 미소 짓고 찹카! 이만하면 우리학교 포토 존은 대성공이다.



▲ 구릿빛 육체를 뽐낸다

"까아악!" 여학생들의 비명소리, "휘-익!" 남학생들의 휘파람소리가 공존하는 이곳은 미스터외대 선발대회 현장. 이날 친구 따라 우리학교에 처음 온 한 고려대 여학생은 "이곳은 성지"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다고.



▲ 빛처럼 음악처럼

이번 축제의 주제 '빛처럼 음악처럼'에 꼭 맞는 조명이 설치됐다. 우리 배움터에 언제 이렇게 예쁜 야경이 있었는지, 요리보고 저리봐도 분명 우리학교 본관 앞이다. 바로 옆 운동장에서는 즐거운 음악이 한가득, 눈앞에는 아름다운 빛이 한아름. 연인들 데이트하기 딱 좋겠네요!

강유나 기자 84yoonah@hufs.ac.kr

젊다고 방심하고 있을 당신에게, Shall we do 운동?

일주일 내내 학과 행사다 동아리 행사다 불타는 밤을 보냈던 강철체력인데... 매일 음주자무를 즐겨도 다음날이면 멀쩡했던 몸 상태가 어느 날인가부터 탄력적으로 회복 되지 않는다.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몸이 자꾸 축축 처져 '공부도 체력이다'는 말에 뼈저리게 공감한다. 이 글을 읽으며 어느 새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당신이라면, 본인이 '운동'이라는 단어와 얼마나 가까운 삶을 살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 같다. 주변에서 운동을 생활화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되는지도 생각해 보자. 하는 운동이 아니라 △등·하고 운동 △숨쉬기 운동 △수다 떨면서 하는 입 운동 아니면 여름 맞이 '반짝' 다이어트 정도라면? 지금, 이 기획에 주목해 보자. **편집자주**



우리학교 학생들의 운동실태는?

꾸준한 운동과 체력관리로 진정한 의미의 웰빙(well-being)을 실천하고 있는 학생들은 얼마나 될까.

이 달 14일(월)부터 17일(목)까지 서울배움터와 글로벌캠퍼스 학생들 733명을 대상으로 '개인별 운동실태'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주당 운동 횟수를 묻는 물음에 43.58%의 학생들이 '안함'이

라고 답했고 '1~2회 운동함'이라고 대답한 학생이 30.74%이었다. 과반수에 이르는 학생들이 운동 없는 일주일을 살고 있는 것이다.

운동을 한다고 대답한 학생들은 운동의 이유로 '건강유지'와 '다이어트'에 각각 38.6%와 38.4%의 비율로 답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운동을 통해서 신체

적·정신적 건강을 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운동을 안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묻는 문항에선 54.19%가 '필요성은 알지만 귀찮아서'라고 답했으며, '시간·금전 문제'가 29.04%, '운동 시설의 미비'가 13.09%를 차지했다. 운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1.02%에 그쳤다. 이처럼, 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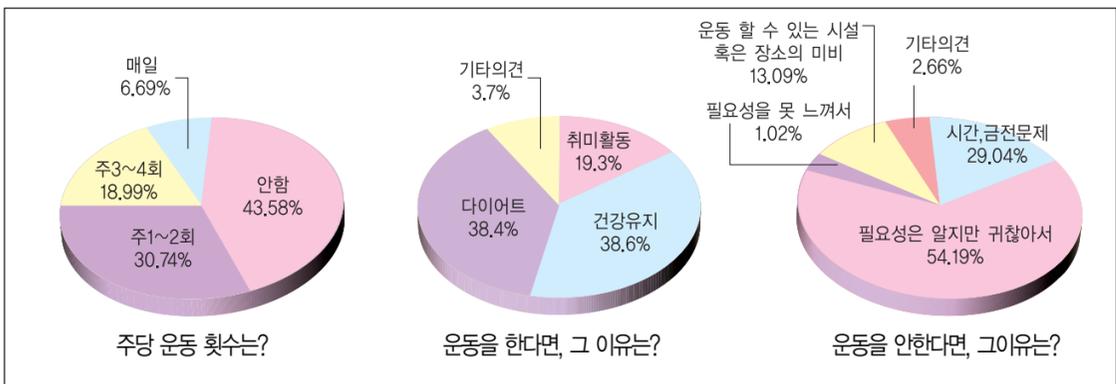
"청소년기에 운동이 필요한 이유는 말이죠..."

운동은 나이 들어서 시작해도 되지 않을까. 우리처럼 젊고 팍팍한 나이에 건강 유지할 게 딱히 필요할까... 이 같은 오해를 풀어주려 우리학교 김태영 사범대학 체육주임교수가 입을 열었다. 그는 "신체는 한번 노화되거나 퇴화하면 다시는 원래의 상태로 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젊고 건강한 청소년기(만15~24세)에 활발한 운동을 통한 건강 유지가 중요한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많은 20대의 대학생들이 이 시기 신진대사가 그 어느 때 보다 왕성해 건강관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또, 다이어트 목적으로 운동을 시작했다가도 며칠 운동 후 체중이 그대로 인 것을 보고 그만두는 경우도 많다. 이에 대해 그는 몸무게가 근소하게 감량되는 것이어도 외관상으로는 확연하게 살이 빠져 보일 수 있음을 예로 들며 지속적인 운동을 부탁했다. 수치상으로는 근소한 감량이어도 킬로그램(kg)당 지방이 차지하는 부피가 커서 외관상으로 운동효과가 분명하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청소년기에는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운동과 새로운 기술을 계속해서 습득할 수 있는 운동을 권하고 싶다고 말했다. 운동의 즐거움을 느껴 평생에 걸쳐 운동을 계속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헬스, 요가와 같은 독립 운동 보다는 탁구, 테니스와 같이 기술을 습득하며 새로운 도전 목표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운동이 끊임없이 동기를 제공할 수 있다"며 "특히나 여학생들은 짜증·방송댄스와 같은 자기표현 운동을 하는 것도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일주일에 세 번 이상! 하루 30분!'이라는 구호 아래 '스포츠 733 범국민 캠페인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국민생활체육회에 따르면, 운동 후 30분이 지나면서 서서히 지방이 분해, 소모되기 시작한다고 한다. 또 스포츠 생리학적으로 우리 인체가 외부의 자극(육체적 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고 운동 효과를 지속하는 시간은 약 2일(48시간)정도다. 따라서 일주일에 3회 이상, 30분 이상씩 운동을 해야 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을까?



기간 : 2012년 05월 14일 ~ 2012년 05월 17일 / 조사대상 : 서울배움터, 글로벌캠퍼스 양 배움터 733명

당신을 위한 맞춤 처방!

당신을 운동으로부터 계속 멀어지게 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여기 당신을 위한 맞춤 처방이 있다!

✓ '시간·돈'이 문제인 당신에겐? 짬짬이 할 수 있는 스트레칭, 근력운동이 최선!

일러스트 제공 : 동대문구 보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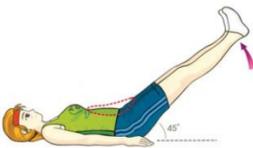
매력적인 가슴

팔을 모아 팔꿈치를 붙여 줍니다. 어깨 높이를 유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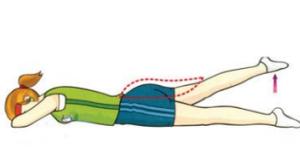
뱃살이여 안녕~

다리를 45°까지만 올립니다.



탄탄한 엉덩이

무릎을 굽히지 않고 다리를 들어 올립니다. 양쪽을 번갈아가며 실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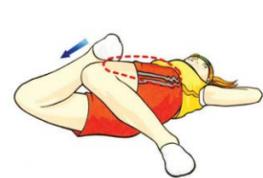
탄력있는 허벅지를

허리를 곧게 편 상태로 상체를 숙여 줍니다. 이 때 오금을 바닥에서 떼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옆구리 군살이 잘가~

걸친 다리로 지긋이 눌러 줍니다. 이 때 엉덩이가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 합니다.



등과 어깨 풀어주기

무릎을 굽히고 앉습니다. 이 때 어깨에는 힘을 뺀 상태로 실시 합니다.



✓ '장소'가 문제인 당신에겐? 학교의 운동시설을 이용해 보라!

✓ '귀차니즘'이 문제인 당신에겐?



<서울배움터 미네르바 컴플렉스 헬스장 이용안내>
이용대상 : 우리학교 학생 및 교직원 (외부인 이용불가)
이용시간 : 월~금 오전 7:00 ~ 오후 10:00
토 오전 9:00 ~ 오후 5:00
일요일 및 공휴일 휴관



<서울배움터 학생회관 지하 헬스장 이용안내>
이용대상 : 우리학교 학생 및 교직원
이용시간 : 월~금 오전 7:30 ~ 오후 21:00
토 오전 11:00 ~ 오후 15:00
일요일 및 공휴일 휴관

◆체지방 분석을 받아보고 싶다면?

우리학교 서울배움터 보건소(국제학사 건물 2층)에 가면 무료로 체지방 분석을 받아 볼 수 있다. 분석목록에는 △체지방량 △체수분량 △근육량 △무기질량에 관한 항목들이 있다. 또한 개인별 식사 및 운동 처방도 제공 된다.



◀ "학생의 체지방 지수는요..." 긴장하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본지 수습기자 양재상(상경·경제 11)군

여럿이 모여서 운동하라! 특히나 동아리 같은 곳에 가입 하면 혼자 운동할 때 만들어 내는 이런저런 핑계들을 방지할 수 있다. 어느 정도의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이다. 우리학교 동아리 체육 분과에는 △검도부 △국토순례 △농구부 △미식축구부 △복싱부 △볼링부 △산악부 △수영부 △스노우보드부 △스키부 △야구부 △유도부 △조정부 △축구부 △탁구부 △태권도부 △테니스부 △핸드볼부 △헬스부가 있다. 사회과학관 지하와 학생회관 지하에 운동부 동아리 방이 있다. 이곳에 찾아가서 등록을 하면 동아리 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으니 관심이 있다면 찾아가 보길 권한다. 작년부터 '러너스하이(Runner's High)'라는 러닝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형진(사회·행정 07) 군은 "혼자 운동을 하면 이런 저런 핑계로 미룰 수 있는데, 동아리 회원들과 주기적으로 장소를 정해 달리기를 하니까 서로 북돋워주면서 지속성 있게 운동을 할 수 있다"며 함께 하는 운동의 장점을 꼽았다.

시대와 소통하는 극, 블랙코미디

문화의 거리 대학로에서는 하루 약 100여개의 공연이 무대에 오르고 그만큼 다양한 이야기가 관객들을 유혹한다. 수많은 공연들 중에 하나를 고르자니 관객들은 좀 더 재미있고 화려한 볼거리에 마음이 가기 십상이다. 사실 피하고 싶은 현실이나 무거운 주제를 담은 극을 선택하기란 쉽지 않다. 이런 현실에 치여 사회적 목소리를 내던 극들이 점차 관객들에게 외면을 받고 있다. 하지만 여기 30년 동안 통련하고 있는 연극이 있다. 초호화급 연예인 캐스팅도, '개콘' 뺀치는 몸 개그도 없이 '칠수와 만수'라는 촌스러운 이름의 이 연극은 정치풍자극이라는 수식어가 무색 할 만큼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정치보다 웃긴' 블랙코미디 칠수와 만수를 지금 만나러 갑시다.

편집자주

◆관객들이 선호한다는 블랙?

연극 <칠수와 만수>의 주인공인 칠수와 만수는 평범한 페인트공이다. 그러던 어느 날, 광화문 맞은편 명품 갤러리 빌딩 전체를 덮는 옥외 광고를 일주일 안에 그려야하는 미션이 그들에게 떨어진다. 뻔뻔한 마감일에 맞추기 위해 칠수와 만수는 하루 종일 광화문 시위 현장 한가운데 서있는 고층빌딩에 매달려 광고를 그린다.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는 2012년 사회문제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연극이지만 연극처럼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청년실업과 빈부격차, 비인간적 노동환경 등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그래서 더 말하지 못했던 우리네 삶을 시원스레 보여준다. 관객들이 열광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다. 쉽게 말해 '쓸쓸한 웃음'을 관객들에게 선사하는 것이다. 이런 연극을 흔히 블랙코미디(black comedy)라고 부른다.

블랙코미디는 코미디의 일종으로 웃음을 끌어내는 것이 목적이지만 인간과 세계의 모순성, 부조리함을 느끼게 하는 역설적인 유머를 사용한다. 풍자와 희화화, 패러디를 등을 통해 웃음을 끌어내므로 밝고 쾌활한 웃음보다는 쓸쓸한 웃음을 통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한다. 30년 역사를 자랑하는 블랙코미디, 우리네 일상을 통해 쓸쓸한 웃음을 주는 <칠수와 만수>가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장과 비서의 유니폼과 마크만 봐도 관객들은 웃음을 지을 수 있다.

◆연극을 통해 스승을 말한다

이번 달 8일(화) 공연은 조금 특별했다. 4명의 관객들과 '청년들의 현실을 까발린다'라는 주제로 100초 토론회를 연 것이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패널은 △강주희 청년당 공동대표 △한지혜 청년유니언 위원장 △정세은 통합진보당 서울지부 대학생 당원 △김지인 학생으로 구성됐다. 청년들의 현실 문제를 다루는 토론회에서는 가장 큰 화두가 등록금과 취업이었다. 강주희씨는 "취업과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치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대부분의 관객도 이에 동의 했다. 또한 청년들의 정치 참여방법에 대해 정세은 양은 "학생신분이지만 관심 있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감시나 선거활동은 중요하다고 생각 한다"고 구체적 방안에 대해 자신의 주위에서 찾아볼 것을 제의했다. 김지인 양은 "실질적으로 대학생이 체감하는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어 공감하고자 했다"며 토론회에 참여한 소감을 전했다. 이런 공식적 활동을 통해 유연수 연출자는 "이제는 극을 통해 느끼는 것을 나누는 활동도 이뤄지는 시대로 변했다"고 말했다.

문나윤 기자 84beginning@hufs.ac.kr



▲주인공 칠수(오른쪽)와 만수(왼쪽).

사진 스토리피 제권

유연수 연출자가 말하는 '칠수와 만수'

Q. 연극으로 사회현실을 풍자하게 된 계기는?

A. 1977년 창립한 극단 '연우무대'에 93년에 입단하게 됐다. 당시 극단이 창작극을 공연을 많이 했고 한국현실이나 우리네 일상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극이 많았다. 때문에 자연스럽게 1980년대 군부독재시절, 사람들의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주기 위해 정치를 풍자하는 <칠수와 만수>를 공연하게 됐다.

Q. 정치 풍자극이기에 겪었던 에피소드는?

A. 그 당시는 사전에 공연대본을 제출해 검열을 받던 시대였다.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잡은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에는 규제는 완화되었지만 검열은 받아야 했다. 제대로 된 정치를 말하고자 하면은 대본이 빨간 밑줄투성이가 돼서야 공연허락 도장을 받을 수 있었다. 한번은 검열관이 직접 공연을 관람했는데 정치적 비판이나 욕이 나오는 부분을 감시해야 할 감시자가 도리어 재밌게 즐기고 돌아갔다. 이것이 블랙코미디의 매력 같다.

Q. 이 극에서 드러낸 사회현실 풍자 중 가장 학생들에게 알고 싶은 것과 이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메시지는?

A. 한마디로 극은 2012년 대한민국의 현실을 이야기한다. 27살인 두 주인공은 대한민국의 젊은이를 총칭하는데 흔히 말하는 3D(difficult, dirty, dangerous)업종에 종사한다. 광화문 앞에 세워질 건물에 페인트칠을 하는 두 젊은이를 앞세워 12시간씩 일하지만 비인간적인 대접을 받는 현실을 꼬집었다. 또 그 밖에 청년실업과 빈부 격차 등의 문제도 어디선가 일어나는 우리의 일이다. 대학생들에게 직면한 등록금과 취업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못했다.

하지만 넓게 보면 극에서 다룬 문제들이 대학들이 직면한 문제와 연결돼 있는 전반적인 시대상을 다뤘다.

Q. 5년 만에 재공연 됐는데, 달라진 점은?

A. <칠수와 만수>가 5년 만에 재공연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치보다 더 웃긴 것은 없다'는 사회분위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대 최고 인기를 누렸던 과거의 칠수와 만수에 비해 지금의 두 주인공은 그렇게 속 시원히 정치를 비판해 관객들의 기대심리를 충족시키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보다 우리의 주변 일에 대해 중심을 두고 소통으로 풀어가는 메시지를 전하려 했다. 극에서 나오는 우리 시대상을 정치적 사건과 결부시켜 이야기를 뽑아내 관객들과 소통하며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다.

Q. 대학생들이 극을 어떻게 느끼길 바라나?

A. 연극 특유의 현장감을 통해 딱 와 닿는 메시지가 있어 감동을 느꼈으면 한다고 한다. 또 공감과 함께 주위를 좀 돌아볼까 생각했으면 좋겠다. 극을 타고 흐르는 '사노라면'이란 음악과 마지막에 울리는 총성은 극이 비극적으로 끝나는 것을 보여 주지만 이와 반대로 희망적 메시지를 가져가길 바란다. 극을 통해 소통하며 우리가 사는 시대를 이해하는 것이 기획한 의도라며 오늘도 관객과 소통하길 기다리고 있다.



사진 강나윤 기자

그림 읽어주는 기자

기자 고정 칼럼

서상아 기자

달마의 하소연

강인하면서도 섬세한 필력,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휘갈긴 듯 그러나 꼼꼼한 세부묘사, 확실한 농담의 조화까지. 수많은 전설만큼이나 많은 화가들에게 영감을 준 '달마'지만 그 중에서도 조선 시대 화가 김명국의 달마도는 최고 중의 최고로 꼽힌다.

달마는 남인도의 한 왕국에서 왕자로 태어나 어린 나이에 불교에 귀의했다. 그리고는 중국에 불교를 전파하기 위해 3년 동안 배를 타고 캄보디아를 거쳐 520년 경 중국에 도착했다. 그의 나이 100세가 넘어서였다. 달마는 소림사에서 9년간 면벽좌선(벽을 보고 앉아 수행하는 것)하면서 깨달음을 얻었고, 중국 선종의 시조가 됐다.

구도를 향한 그의 열망은 숲보다 뜨겁고 나무 껍질보다 질겼다. 달마는 수행 도중 졸음을 이길 수 없자 자신의 눈꺼풀을 잘라버렸다. 그의 제자인 혜가 역시 달마가 쉽사리 스승이 되어주려 하지 않자 자신의 팔을 잘라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부리부리하면서도 아무진 달마의 표정에는 진리에



김명국, <달마도>

도달하고자 하는 강한 신념이 녹아있다.

그러던 요즘은 웬지 그가 슬퍼 보인다. 변함없던 그의 눈망울이 흔들리는 듯도 하다. 끝없는 폭로전을 일삼는 우리나라 불교계의 행태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일까. 부처님 오신 날을 일주일 넘게 남겨놓고 조계종 스님들의 비리 의혹이 연일 제기되고 있다. 역대 도박판부터 릉살롱 성매매 의혹까지. 그 내용 또한 종교인들이 한 행각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선정적이다. 불교계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도 아니다.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각종 비리 및 사태가 터져 나오는

실정이다.

어지러운 세상, 마음의 안식처를 종교에서 찾고자 했던 신도들이 오히려 혼란에 빠진다. 그 누구보다 부패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구도자들이 흉탕물에서 뒹굴고 있으니 지켜보는 달마가 답답할 만하다. 전설이 될 만한 영웅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각자의 믿음 안에서 자유롭고 그 누구보다 순결하길... 이것을 바라야 하는 오늘이 안타깝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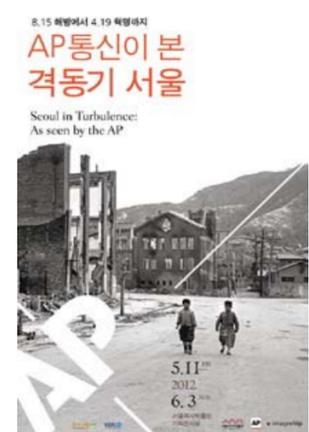
이은수 기자의 들찬길* @AP통신이 본 격동기 서울

*들찬길 : 들판으로 박차고 나아가는 길

카메라 앵글이 향한 현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 역사가 만들어진다. 고종황제가 몇 년 만에 처음 커피를 접했는지는 그의 개인적인 취향변화처럼 보이지만 역사 교과서에도 당당히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그리고 보면 역사가 신분의 고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고종황제와 같은 시대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역사의 주목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들의 모습은 어땠을까. 그들에게도 역사의 크고 작은 바람은 불었을까. 그들은 어떤 표정으로 모진 역사를 감내했을까.

다음 달 3일(일)까지 광화문의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진행되는 'AP통신이 본 격동기 서울' 사진전에서 혼란스러운 시대의 변두리에 섰던 그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해방의 기쁨도 잠시, 우리나라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어야 했다. 남과 북이 밀고 들어오고, 밀려 나가는 줄다리기를 하는 동안 '높으신 분들'에게 당시 상황은 지도 위의 땅따먹기에 불과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높으신 분들'이 전세를 논하던 지도에서 작은 점도 채 차지하지 못할 한 작은 마을로 들어서 보자. AP통신이 포착한 이 마을은 인민군이 점령했다가 다시 수복한 곳이다. 인민군에 협력한 주민과 협력하지 않았던 주민들이 주먹다짐을 하고 있는 모습이 사진에 담겼다. 사이좋은 이웃이었을 그들에게서 서로를 향한 살기가 느껴진다. 무장한 미군 한 명이 그 싸움판을 구경하는데, 짝다리를 짚고 무관심한 눈빛을 보내는 것이 싸움판까지 하다.

한국전쟁 중에 세계최대 통신사 중 하나인 미국의 AP통신은 수많은 특파원과 중군기자들을 파견했다. 미군과 동행한 기자들이 찍은 사진이 지금까지 남아 역사의 한 부분이 된 것이다. 하지만 사진속 보통사람들에게 그것은 역사가 아닌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이었다. 그것이 카메라 앵글이 비춘 사람들의 웃는 얼굴조차 애달프게 보이는 이유다. 과연 몇 십 년 후의 역사가 될 오늘의 사진은 어떤 표정을 담고 있을까.

온실가스 배출권을 둘러싼 환경논의



장수환
(중남미연구소
연구교수)

이번 달 초 국회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됐다. 탄소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총량을 설정하고 기업이 해당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되, 초과 달성분은 판매를 할 수 있고 부족분은 배출권거래를 통해 구입하는 제도다. 여기서는 탄소배출권을 둘러싼 좀 더 진지한 환경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탄소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리를 환경오염원인에게 부여하고 이를 돈으로 거래하도록 한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의 실시는 배출권을 살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배출을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능하게 해준다.

둘째, 탄소감축의무가 있는 선진국들은 탄소감축을 위해 비용을 투입하는 반면 개도국의 경우 탄소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생산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들 국가 간의 생산제품의 가격차이는 관세를 통해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탄소관세라고 하는데, 실제로 세계무역에서 환경문제는 새로운 통상의제로 등장하는 추세다. 탄소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면 선진국은 노동시장이 감소하여 실업률이 증가할 것이고 개도국에는 탄소배출을 많이 하는 산업이 입지하게 돼 더욱 오염이 될 것이라는 것이 탄소관세를 주장하는 선진국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고급환경기술이라는 무기로 이미 무장한 선진국의 탄소관세 도입 주장은 그동안의 선진국과 개도국의 격차를 확대 재생산하는 것이라는 비판적인 시선에서 자유롭지는 못하다.

셋째, 환경목표달성을 위해 환경영향권에서 허용할 수 있는 최대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을 정하는 것으로 환경

오염물질의 배출한도를 지정하는 문제다. 이 배출한도로 정해진 배출총량을 소량의 배출증서로 분할하여 오염원인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배분하는데, 환경오염원인자는 할당받은 배출권을 가지고 할당량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고, 감축프로젝트를 통해 UN의 인정받은 배출권을 프로젝트시장에서 거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환경오염물질의 배출한도를 어떻게 정하는가는 기업을 포함한 오염원인에게 매우 민감한 문제이고 배출증서를 오염원인에게 배분하는 문제도 쉬운 문제는 아니다.

넷째, 탄소배출권이 돈벌이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이다. 몇 년 전 한 방송사에서 방송된 '탄소사냥꾼'이라는 프로그램에서는 세계각지에서 탄소배출권을 얻어 그로부터 돈을 벌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사업을 벌이는 일명 '탄소사냥꾼'들이 방송된 적이 있다.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태평양, 필리핀 술루해(Sulu Sea)에서 비료를 주는 사업이었다. 비료를 주면 바다 속의 해조

들이 자라나면서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뿜는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산림탄소배출권처럼 탄소배출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결국 탄소사냥꾼에게 탄소배출권은 돈이었다. 그런데 그 다음 인더부한 그 지역 환경운동가는 지구온난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의 개념을 꿰뚫고 있는 말을 해서 가슴이 찡찡했던 적이 있다. 그의 인터뷰로 본 내용을 접는다.

"바다에 비료를 주다니 미친 생각입니다. 정말로 기후변화를 막으려면 위험한 물질을 넣는 것이 아니라 매년 배출을 막아야 합니다." 완전히 미친 거죠. 바다를 위험하게 만드는 것예요. 우리 바다에 위험한 물질을 넣는 건 바라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업을 위한 것이지 지역주민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금 현재, 우리를 위해 이 바다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 보호할 거예요. 정말로 기후변화를 막으려면 바다에 물질을 넣으면 안 되죠. 매년배출을 막아야 합니다."

극 과 극 기자 고정칼럼

문나윤 기자

행복은 늘 가까이



▲ 연극 <작전 임이랑 지우기>

날씨도 좋고 바람도 좋아 기분 좋은 일반 일요일 것 같은 봄. 하지만 뜻밖에도 봄이 일년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시기라고 한다. 지난 달 한 지역에서만 6명의 청소년이 삶을 포기한 채 자살이란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지난 해 1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인구 10만 명당 자살비율을 국가별로 조사한 결과 한국이 자살률 1위를 차지했다. 때문에 우울증 상담과 치료 확대 등 국가적으로 자살방지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그런데 여기 인체에 칩을 심어 자살 기도자를 격리해 치료하는 사회가 올 것이라 가정하는 극이 있다. 얼토당토 않은 이 극을 주목해보자.

2027년을 살아가는 <작전! 임이랑 지우기>의 주인공 17세 청소년 임이랑은 인생만사가 불만이다. 그 무엇보다 자신이 태어날 때 엄마가 죽어 아빠가 자신을 미워한다는 생각과 여타 다른 삶의 이유를 찾지 못해 자살을 결심하지만 매번 실패하고 만다. 이랑은 자살기도자로 격리돼 치료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선택할 수 없다면 자신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마음을 먹고 2012년으로 시간여행을 떠난다. 2012년으로 돌아가 아버지의 먼 사촌동생으로 변장한 이랑은 자신이 태어나기 전 엄마와 아빠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느끼게 되며 자신의 출생을 막으려는 결심이 흔들리게 된다. 이랑은 부모님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행복하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다. 때문에 그들의 사랑을 축복하며 현실로 돌아와 모든 일에 불만스럽게 임했던 태도를 접고 주위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노력을 시작한다.

△확립 관리 △이성친구 문제 △취업고민 등 인생이 지치고 힘든 일투성이라는 생각이 들다면, 혹시 행복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저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지 주위를 둘러볼 필요가 있다. 극중 이랑은 평소 삶의 의욕을 찾지 못했지만 시간여행을 통해 모든 순간에 사랑이 가득했음을 느꼈다. 비록 지금 이순간이 지치고 힘들게만 느껴지더라도 당신의 곁에서 당신을 사랑해주는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세상을 책 it out 세일즈 맨의 죽음

안지혜 기자

아버지, 참을 수 없이 외로운 존재들

일평생을 회사와 가족에 헌신하다가 어느 덧 중년의 끝자락에 닿은 아버지의 작은 어깨를 본 적이 있다.

1940년대 후반 미국의 산업사회, 평생을 외판원으로 살아온 60세 노인 윌리 로먼은 한 때 유능한 세일즈맨이었다. 번쩍이는 차와 새 집, 그리고 자랑스러운 아들들까지. 그는 남부러울 것이 없었다. 하지만 경제 대공황 이후 미국 사회에서 세일즈맨의 입지가 줄어들면서 윌리는 그의 자량이었던 모든 것을 잃게 된다. 평생을 바쳐 일하던 직장에서 퇴출되고 아들 역시 사업가로서의 성공을 꿈꿨지만 실패로 돌아가고 만다.

그는 △잡나가던 세일즈맨으로서 어디서나 받았던 환영 △연일 최고의

성과금을 경신해 사장에게 얻었던 신입 △장래가 촉망되던 아들에 대한 자부심과 기대감에 대한 그리움으로 과거와 현재를 끊임없이 오간다. 좋았던 시절에 대한 향수는 그를 과거의 기억 속에 살게 만들고 정상적인 현재의 삶을 불가능하게 한다. 그는 결국 남아 있는 가족들에게 새 출발을 위한 보험금을 선뜻하기 위해 제어장치가 없는 자동차에 시동을 걸어 죽음을 맞이한다. 조문객조차 없는 윌리의 조출하고 쓸쓸한 장례식을 마지막으로 작품은 마무리된다.

누구보다 자기 일에 열심이었고 자식들을 끔찍이 여겼으며 가정과 사회의 사랑을 신뢰했던 주인공 윌리의 몰락. 그의 삶을 통해 '아버지'라는 존

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 갖춰져야 할 최소한의 조건을 꼽아 본다. 아마도 사회의 인정과 존경, 자식들을 키우면서 느끼는 보람 그리고 가정을 건사하게 하는 경제적 능력이 최소한의 그것이지 않을까. 이것이 없어졌을 때 윌리가 더 이상 삶을 견뎌지지 못하고 죽음을 택했듯이 말이다.

쌍용자동차가 중국 상하이 자동차에 팔리면서 노동자를 대거 해고한 지 어언 3년이 흘렀다. 복직을 요구하며 회사를 상대로 투쟁을 계속해 온 해고 노동자와 그 가족 가운데 얼마 전 22번째 희생자가 나왔다.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라는 낙인 때문에 재취업이 쉽지 않은 현실과 그로 인한 생활고가 그들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든 것이



▲ 아서밀러 작

다. 쌍용자동차와 해고 노동자들 사이의 사회적인 인식관계는 차치하고 온전히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해고노동자들의 삶을 생각해 본다.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그들이 생전에 '아버지'가 가져야 하는 최소한의 생존조건 중 몇 가지를 가질 수 있었을까. 그들의 죽음에서 참을 수 없는 쓸쓸함과 쓰라림이 느껴진다.

경·제·속·속

손기혁(경제칼럼니스트)

네모난 지구 15 (고정이고)

김병호(국제지역대학원)

잃지 않는 재테크

이제는 재테크를 잘해서 부자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재테크를 열심히 해 그만큼의 성과를 내도 "이제부터 당신은 부자" 라고 인정해 주지도 않는다. 하지만 이제 재테크를 못하면 거지가 될 수 있다. 부자는 될 수 없지만 안 하게 되면, 못하게 되면 거지가 될 수 있는 세상인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재테크를 해야 할까?

20대라면 '잃지 않는 재테크'가 가장 좋다. 잃지 않는다는 것은 수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수많은 의미의 이 '잃지 않는 것'들은 매우 강력하며 어렵고 또한 귀찮다. 그렇다면 잃지 않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알아보자.

대표적인 것은 절약이다. 200만 원짜리의 삶이 준비된 사람이 잡고 잡아서 50만 원짜리의 인생을 감내하다가 나중에 300만 원짜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재테크의 기본이다. 사실 10%의 수입을 올리는 것보다는 10%의 절약을 하는 것이 몇 배 더 쉽다. 절약에는 어떤 위험도 없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지출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여기엔 강한 동기와 긍정적인 사고가 요구된다. 이제 갓 사회에 입문하여 120만 원의 월급을 받는다고 가정해 보자. 생활비를 아끼고, 절약해가며 △30만 원은 청약에 △30만 원은 상호금고에 △30만 원은 펀드로 굴러야만 잘하는 재테크일까? 잃지 않기 위해, 좀 더 나

은 내가 되기 위해서 △30만 원을 교양을 위한 문화생활에 투자하고 △30만 원을 식견을 넓히기 위한 여행비로 지출하고 △30만 원을 인맥형성을 위한 교제비로 투자해도 훌륭한 재테크라 말할 수 있다. 정답은 어떻게 쓰느냐,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천만 원을 가진 사람과 1억을 가진 사람, 그리고 10억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 누구나 아래 단계에서 위의 단계를 바라보며 부러워하고 동경할 것이다. 하지만 천만 원의 삶과 10억의 삶이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재테크는 재미다. 그리고 삶의 일부이자 희로애락의 한 요소다.

집 앞 도로에서 가족끼리 줄넘기를 하는 것과, 월 30만 원짜리 헬스클럽에서 러닝머신 위를 달리더라도 다리 근육이 늘어나고 숨이 가빠오는 것은 똑같다. 그러나 30만 원짜리 헬스클럽에서 운동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집 앞에서 줄넘기를 해야 한다는 것을 '실패'라 부르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사람들은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의 말대로 그들은 정말 큰 실패를 한 것이다. 물론 지칭하는 '잃음'은 서로 다르겠지만 말이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또 잃고 있진 않는지 돌아보는 하루가 됐으면 한다.

유로존 위기와 거품 경제

냉전이었던 1971년 달러 금 태환이 중지되었고, 1973년 달러와 기타 통화 간의 고정환율제가 폐지되면서 1944년부터 이어져왔던 브레튼우즈 체제가 막을 내렸다. 그리고 21세기, 유로화의 도입으로 새로운 통화체제의 개편이 이뤄졌다. 과거 1차, 2차 세계 대전을 치렀던 적대 국가끼리 지역 통합을 이뤄낼 수 있을까란 회의적인 시각도 많았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EU가 만들어졌고, 이는 다른 지역들로 하여금 지역 통합을 구상하고 추진하는데 큰 동력으로 작용해왔다.

유로화는 도입 초기에 가치가 크게 하락했지만, 2008년에 들어와서는 유로당 1.6달러의 환율을 기록할 정도로 성장했다. 이에 반해 미국 달러화는 9.11테러 이후, 미국의 막대한 군사비 지출(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 에너지와 원자재 등의 가격 불안정성으로 인한 미국 경제의 약화, 2008년 서브프라임 금융위기로 인해 달러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면서 가치가 하락했다. 이 같은 상황은 각국의 중앙은행들로 하여금 외환보유고에서 달러화 대신 유로화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외환정책을 수정해 나가도록 만들었다. 실제로 각국의 외환보유고 중 유로화 비중은 2003년에서 2007년 사이 18%에서

26%까지 치솟았다. 이렇게 유로화가 빠른 성장세를 보이자 흑자들은 달러화가 파운드화를 대체했듯이 10~15년 후면 주요 준비통화의 지위가 유로화로 바뀔지도 모른다고 예측했다.

하지만 이런 예측과는 달리 현재 유로존은 계속해서 시련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유럽 재정위기는 6개월 정도의 주기로 반복되면서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최근에는 그리스와 연정 구성에 실패하면서 이탈리아나 스페인 등의 상황에도 불안감이 조성되며 투자자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연정 구성 실패라는 사안이 유로존 전체의 정치 리더십 위기로 번지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 특히, 그리스의 경우 빚을 빚으로 갚고 이 빚을 빚을 키우는 악순환의 고리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형국이 되어버렸다.

1990년대 아시아 경제위기, 2008년 세계 금융위기, 그리고 2012년 유로존 위기까지. 왜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위협을 받고 있는 가란 물음이 생긴다.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생산경제와 금융경제 간 규모 격차가 이미 견줄 수 없이 커졌다는 것이다. 즉, 우리는 모두 거품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로그아웃 기자 고정 칼럼

강유나 기자

부정부패도 습관이다



지난 본지 946호 9면의 경제속속 코너에는 '재테크도 습관이다'라는 제목의 글이 실렸다. 우리학교 동문인 신한은행 차장 김차환 선배님(89학번)이 쓰신 글로, 미리 일정한 양의 액수를 정해놓고 습관처럼 저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정한 기준을 절대 어기지 않는 것이 부자와 빈자를 나누는 근본적인 차이라고 강조했다. 글이 실린 후 원고료 정산을 위해 선배님께 연락을 드렸다. 그러나 선배님은 원고료를 받으려 하지 않으셨다. 소중한 글을 보내주신 것으로도 모자라 원고료까지 받지 않으려 하시는 경우는 처음이라 적잖이 당황했다. 하지만 이유를 알고는 숙연해졌다. '금융 기관에 몸담고 있는 이상 돈에 관해서는 누구보다 깨끗해야 한다'는 자신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원고료는 학교에서 지급되는 정당한 대가라고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정당한 대가라 할지라도 한번 외부에서 돈을 받기 시작하면 그게 무서운 습관이 된다"며 "처음부터 자신이 정한 기준을 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

요즘 뉴스와 신문은 연일 계속되는 부정부패 소식으로 얼룩졌다. 특히 매년 끊임없이 반복되는 담합비리 사건들을 보면 비리는 항상 발생했던 곳에서 또 발생하는 것처럼 보인다. 바꿔 말하면 한번 부정한 돈맛을 알아버린 사람들이 습관처럼 부정부패를 저지른다는 것이다.

하지만 부정부패로 타락한 사회를 깨끗하게 되돌릴 기회는 아직 남아있다.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처럼 어릴 적부터의 습관이 중요하다. 이제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자신이 정한 양심의 선을 넘지 않는 습관을 들인다면 한층 더 깨끗한 사회는 꿈이 아니다. "부정부패도 습관"이

흡폐서(HUFS+professor)의 소리

국제스포츠레저학부 박성희 교수



현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스마트폰과 함께한다. 특히 이 젊은이들에게는 스마트폰 없는 세상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 같다. 이런 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걱정이 하나 생겼다. 이는 바로 논리적 사고 능력의 저하와 이를 글쓰기(논리적-감성적 포함)와 말하기로 연결 짓는 능력의 부재, 즉 총체적인 논리적 사고능력의 부재에 대한 염려이다.

이와 같은 현상의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글쓰기 부족을

가장 큰 원인으로 삼는다. 하지만 이는 논리적 체계라는 큰 관점에서 보면, 많이 쓰기 논리 체계라는 뼈대를 채워나가는 수단적 도구들이지, 그 자체가 논리적 체계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생각의 지도를 움직이는 근본적 체계를 알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현대적 관점에서 볼 때 미디어의 변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글자 수 제한이 걸려 있는 트위터와 페이스북, 그리고 짧은 휴대전화 문자와 단답형 대화를 이루는 메신저는 이미 우리 젊은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매체가 되면서, 그 효율성에 날개를 달고 있다. 'ㅋㅋ'와 'ㅎㅎ'는 애교 정도에 불과하고, 기성세대가 보면 도저히 알 수 없는 말들도 수도무하다. 말이 가진 복잡 미묘한 분위기의

차이는 ㅋㅋㅋ와 ㅎㅎㅎ로 왜곡된다. 이렇게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복잡하고 구조적-체계적인 사고의 과정이 필요치 않은 게 아닌지 생각해본다.

하지만 사회가 이리 변해 가는데 어떻게 학생들만을 탓하겠는가? 뉴미디어의 기본 원리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바탕으로 한다. 생각 → 프로세스 → 글쓰기(혹 말하기) → 프로세스 → 전달 → 프로세스 → 쌍방간의 기다림 → 수신 → 프로세스 → 수용 → 프로세스 → 피드백과 같은 커뮤니케이션의 구조적 프로세스를 생략하고 간소화한 현대의 뉴미디어는, 너무나 각박하고 치열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커뮤니케이션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 중 가장 중요한 하나를 고르라면 쓰기를 골라낼 것이다. 쓰기

는 말이 어눌한 사람에게도, 순간적 기지와 순발력이 떨어지는 사람에게도, 공평한 기회를 제공한다. 진짜 생각, 진짜 신념, 진짜 마음을 알게 해준다. 그렇기에 쓰기를 소홀히 하고 쓰기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그들의 진짜 생각도 흐려질까봐, 스마트폰 따위 등으로 깊고 진지한 감성들까지 묻혀 질까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멋있는 사회가 될까봐 가르치는 자로서 늘 염려가 된다.

학생들에게 말한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거든 메신저나 문자보다는 전화, 전화보다는 얼굴과 살을 맞대고 대화하라고 이야기한다. 사랑은 프로세스를 무시한 '효율성'이 아니지 않는가? 우리 학생들이 두근거림, 기다림의 미학을 알고 성숙해지기를 기대한다.

언어습득 연구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우리학교

동문의 소리

하와이대 언어학과 박사과정 이유리 (이탈리아어과 93)



며칠 전 내게도 조카가 생겼다. 갓 태어난 조카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작고 약해보이고 아직은 우는 것 밖에 할 줄 모르는 것처럼 보이는 아기가 고작 이삼년만 지나면 우리와 언어로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해 줄 것이라 생각하니 새삼 인간의 언어능력이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간은 어떻게 언어를 습득할까? 세상의 모든 아기들이 별다르게 힘들이지 않고 언어를 습득하는 듯 보이기 때문에 언뜻 보기에

그 습득과정을 밝혀내는 것은 어렵지 않게 느껴지지만 사실 이것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다. 언어 습득이란 일반적으로는 인간이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해가는 과정을 의미하고 또한 모국어 습득을 연구하는 언어학의 하위 분야를 지칭한다.

인간의 의사소통 체계는 동물의 의사소통 방법에서는 절대 찾을 수 없는 독특한 특징이 있고 아프리카 원주민의 언어부터 우리의 모국어인 한국어는 물론,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영어에 이르기까지, 모든 언어에는 보편적인 특징, 즉 보편문법(=Universal Grammar)이 있다고 촘스키는 주장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많은 학자들은 심리언어학적 과정을 통해 복잡한 의사소통 체계의 형성 과정을 밝혀려 노력하고, 언어의 인지

모형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최근 30여 년 간은 심리학, 사회학, 인류학, 교육학 등의 다른 분야와 협업도 활발해지고 있다. 또한 현대 언어학에서는 언어의 습득은 뇌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여, 인간의 인지 능력과 뇌 과학을 접목시켜 연구하고 있다.

언어습득의 연구는 단순히 모국어 습득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제2언어 습득의 연구에도 커다란 밀거름이 되고 있다. 현재 제2언어 습득 분야의 전문가들은 모국어 습득 연구와 함께 제2언어 습득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힘으로써 제2언어 습득의 이론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학교는 제2언어 습득분야에서 독보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다.

45개에 달하는 다양한 국가의

언어를 가르치는 학과들이 개설되어 있어 해마다 수많은 해당 언어 전문가 및 연구자들을 배출하고 있다는 점과, 이론뿐만 아니라 실용적인 전문지식으로 무장한 인재들이 많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에는 영어권 화자는 물론 중국어, 일본어, 몽골, 러시아, 전 유럽의 다양한 외국인 화자들이 외국어로써의 한국어 습득을 위해 우리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우리학교는 수십 년 간 축적된 외국어 학습과 실제 제2언어 습득 자료를 근거로 한 연구의 경험을 적용하여 각 언어의 유형적인 차이점 등을 적용시킨, 보다 전문적인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이러한 많은 장점을 가지고 구성원들 모두가 보다 심화된 연구를 계속 해 나간다면 우리학교가 학계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세계적

일시 정지 웃지 않아도 아름다운 그녀



서울배우터 대동제의 일환으로 열린 조혈모 세포 기증운동 행사장에서 한 학생이 조혈모 세포 기증을 위해 채혈을 하고 있다. 아프지는 않지만 주사바늘을 보는 것만으로도 두려워 눈을 질끈 감는다. 누가 웃는 여자만 아름답다고 말했다. 웃지 않는 여자도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다. 글·사진 조인우 기자

지나호를 말한다 | 경근호 | 동아어 | 이란어 12

지나호를 말한다 | 박승주 | 동유럽 | 세크어 09

바람직한 취지의 주제 선정

이번 학보의 가장 두드러지는 장점은 기사 주제 선정이 굉장히 잘 되어있다는 사실이다. 흔히 5월 초에 나오는 발간지의 경우 어버이날이나 스승의 날을 중점적으로 다루기 마련이다. 물론 부모님과 스승의 은혜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함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그렇다고 이를 학보에 서까지 지나치게 크게 다룰 경우 다소 식상하고 천편일률적이라는 느낌을 주기 쉽다. 대신 이번 학보에는 5월의 수많은 날들 중 근로자의 날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학교의 근로자분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 인터뷰 기사를 게재되었다. 이러한 시도는 매우 참신했을 뿐만 아니라 기사의 취지 역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평소 우리의 생각이 미처 다다르기 쉽지 않지만, 우리의 생활에 알게 모르게 굉장히 큰 도움을 주시는 우리학교의 근로자 분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보다 잘 알게 되는 계기가 됐기 때문이다. 의식적으로 신경 쓰지 않으면 지나치게 쉬운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학보의 여러 기능 중 하나라고 할 때, 이번 특집 인터뷰는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역시 상당히 바람직한 취지로 기획된 기사가 있는데, 우리학교의 도서관 이용의식 실태

를 고발한 기사가 그것이다. 기사는 도서관 이용시 일부 학생이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공공장소에서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의 대부분은, 행위자의 이기심이나 몰지각함보다는 악의는 없지만 다른 사람들을 미처 충분히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해지기 마련이다. 이 기사는 이렇게 무심코 도서관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행동들의 항목을 보여줌으로써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의식을 개선할 수 있게 해주었다고 본다. 생각은 하지만 함부로 말하기는 쉽지 않은 '쓴 소리'를 했다는 점에서 이 기사도 학보의 의무를 저버리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관점에 따라 사족일 수도 있지만 하나 아쉬웠던 점은, 십자말풀이의 가로 3번 항목이 문제는 없이 간만 있었다는 점이다. 물론 사소한 실수여서 십자말풀이 놀이를 하며 지식과 교양을 함양하는 데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십자말풀이의 또 다른 목적인 가득 채운 퍼즐을 보며 즐거워하기, 혹은 뿌듯함 느끼기에 가치를 부여하는 독자에게는 다소 안타까운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보는다.

학생의 대변자와 소통의 장소 학보

이번 학보는 전체적인 구성이 교내의 다양한 활동과 문제점 제기가 균등하게 배분되어 있어서 좋았으며 5월이라는 달의 특수성을 잘 이용한 지면 활용이 돋보이는 호라고 생각한다.

개교기념일 행사와 교내 체전 등 그 동안 일어난 주요 행사를 다루었고, 특히 1면의 칼럼과 마지막 면의 기사는 유난히 '날'이 많은 5월과 관련돼 인상적이었다. 1면의 칼럼은 5월을 단순히 축제의 달, 즐기는 달이 아닌 주변 사람을 되돌아보고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자는 의미로 5월을 재조명한 점이 5월을 맞는 독자들에게 매우 유익한 칼럼이었다. 마지막 지면의 기사는 5월의 다른 날이 많은 예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날을 선정하여 평소 학생들이 무심히 지나칠 수 있었던 교내 시설관리직원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을 인터뷰 형식으로 조명할 수 있어서 좋았다. 8면의 서울풍물시장에 관한 기사는 혼란 공원이나 여행지가 아닌 시장을 나들이 코스로 소개해 신선한 아이디어가 돋보였다.

또한 이번 호에서는 교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소홀하지 않았다. 학생들이 공감할

만한 원어수업 문제와 도서관 이용실태 문제점에 대한 기사는 학생의 입장을 대변했다. 개교기념일과 대학평의회에 관련한 기사보다 이러한 기사들이 학생들에게는 더 실질적이고 공감이 된다고 생각한다. 원어수업 문제에 관한 설문조사는 각 항목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이 실려 좀 더 실질적으로 공감됐으며, 개인적으로 도서관 에티켓 문제에 대한 기사도 조금 아쉬웠다. 단순히 에티켓 문제에 대한 나열보다는 많은 언론에서 심각한 문제로 꼽은 '사석화'에 중점을 뒀다면 기사의 내용에 더 많은 공감이 됐을 것이다. 이런 기사를 이번 호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연재기획으로 만드는 편이 학생들에게 더 유익하지 않을까?

학보는 주 독자층인 학생의 입장을 대변하고, 소통의 장이 되는 교내 언론기관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독자로서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교내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꾸준히 함으로써 학생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더 나아가 문제해결에 실마리를 제공해 주길 바란다. 끝으로 외대학보를 만들기 위해 수고하시는 기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

흡산의 소리 | 흡산(HUFSan)은 Hankuk University of Studies*an의 준말로 외대인이라는 뜻입니다.

대학 생활의 뿌듯함 : 새싹 멘토링 봉사활동

대학생활을 만끽하며 새내기 시절을 보내고 나니 어느덧 2학년이 되어 있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강의를 듣거나, 놀러 다니거나, 알바를 한 것 외에는 딱히 기억에 남는다면 지, 보람차게 느껴지는 일이 없었다. 그래서 2학년 때는 기억에 남을 만한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원봉사나 다양한 대외활동 등을 생각하고 있던 차에 마침 학교 홈페이지에서 “새싹 멘토링”을 발견하였다. 멘토링의 주요 활동은 장애인 부모나 편부모 가정, 가정형편이 곤란한 소년소녀가장 등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학습지도를 해 주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내가 아이들에게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다. 생각 끝에 내가 내린 결론은 ‘힘닿는 데 까지 가르치자’였다. 나의 멘토로 배정된 학생들은 학교 인근에 위치한 중학교 학생 5명이었다. 처음에는 학생들의 수준이 모두 제각각이고, 수업하기를 원하는 과목과 시간이 달랐기 때문에 조를 나눠서 시간표를 짜는 것부터 문제였다. 그러나 시간표가 짜이고 조를 나눈 이후부터 좀 더 수월히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멘토링을 시작하기도 어느덧 두 달이 넘어간다. 식상한 이야기 같지만, 아이들과 점점 친해지면서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보다 아이들을 통해 내가 얻는 것이 더 많은 것 같다. 나 스스로 가르치는 것에 대한 즐거움과 어려움을 몸소 느낄 수 있는 것이 좋고, 아이들의 얘기도 들을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 앞으로 아이들의 방학 때까지 약 2개월 정도의 멘토링 기간이 남았다. 그 동안에는 물론이고 그 후에도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멘토가 되고 싶다.

안정원(동양어 · 이란어 11)

하고 싶은 대로

1학년 2학기 말쯤이 되면 다들 이중전공 선택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한다. 나 역시 많은 고민 끝에 산업경영공학(이하 산공)을 선택했다. 하지만 주변사람들 대부분의 반응은 “고등학교도 문과를 나오고 어문계열인 네가 왜 공대를 가냐?”였다. 사실 나도 처음에는 이중전공으로 국제경영을 생각했었다. 경영학과를 가는 것이 가장 무난하고 미래에 도움이 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다 아랍어를 이중전공 하는 산공과 선배를 만나면서 생각을 바꾸게 됐다. 선배에게 별로 연관도 없을 것 같은 아랍어를 왜 하나고 물었을 때 선배는 “다들 미쳤다고 하는데 그냥 아랍어를 배워보고 싶어서” 라고 대답했었다. 그 말을 듣고 이중전공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기 시작했다. 수학이나 톱 프로젝트 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던 지인들의 우려가 있었다. 실제로 겪어보니 아직 한 학기도 지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정신이 없다. 하지만 나는 산공을 선택한 내 결정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 그저 남들 따라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서 선택을 했고,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전망이 밝은 길도 있고 어두운 길도 있지만 뭐든 자기가 좋아서 노력하다보면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갈 수도 있고, 또한 노력에 대한 결실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짧은 경험에서 온 막연한 생각일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미래만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그러하다면 정말 인생이 재미없어질 것 같다. 그래서 누가 나에게 이중전공을 어떤 걸 선택해야 좋을 지 묻는다면 전공과의 연계나 미래를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생각은 접어두고 우선 배워보고 싶은 것이냐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라고 말해주고 싶다.

황성혁(통번역 · 아랍어 11)

사설

학교 구성원의 화합과 협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서울배움터 대동제가 끝나고, 어느 새 학생들은 학기말 준비를 시작하고 있다. 지난 3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특강 이후 이번 대동제에 이르기까지 학교는 축제 분위기에 휩싸여왔다. 하지만 지금 우리 학교는 들뜬 분위기에 묻혀갈 수 없는 여러 시급한 현안에 직면해 있다.

본분교통합은 ‘안 해도 그만인 문제’가 아니라, ‘안 하면 학교가 여러 측면에서 불이익을 보게 되는 학교의 미래가 걸린 사안’이다.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 일부 학과 및 구성원의 반대로 교과부 결정이 유보된 상황이다. 또, 우리 학교는 2013년 1학기 대학기관인증평가를 받을 예정인데, 기관인증을 성공적으로 받기 위해 본분교통합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 학교의 교수총원률은 인증평가 기준을 크게 초과하고 있지만, 전임교수 강의담당 비율은 낮은 편이다. 이는 그동안 내실있는 교육을 위해 소규모 분반 강좌를 많이 운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학과, 단과대학 등에서 단거지 불이익을 감내하면서 전임교수 강의담당 비율을 높이는 데에 협력해야 한다.

그 밖에도 글로벌 캠퍼스의 멀티플렉스 작공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학과별 교수 채용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법인 이사회의 협력이 절실하다. 지금 우리 학교는 상당한 수준의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법인이사회는 인사를 포함한 학사 운영 간섭을 최소화하고, 법인이사회 본연의 역할인 외부 활동을 통한 재원 확대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위기 상황 일수록 법인이사회, 학교, 교수협의회, 대학평의회는 맡은 소임과 역할에 충실하여 화합과 협력을 통해 학교가 직면한 현안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권위보다 중요한건 사랑이다

지난 15일(화) 어김없이 ‘스승의 날’이 찾아왔지만 학교의 분위기는 예전만큼 즐겁지 않다. 한때는 존치, 뇌물을 단절하겠다는 의도로 스승의 날 임시 방학을 하기도 했었지만 이제는 이런 걱정보다는 바닥에 떨어진 교권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더 높다. 연일 언론에 보도되는 모습들만 봐도 스승에 대한 존경심은 찾아보기 힘들다. 4년 연속 교사의 직업 만족도가 떨어진 것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교사들은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학생들이 교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만만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이 학생들의 태도와 직결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동들을 하기에 이르렀다. 선생을 선생으로 인정하지 않는 학생들의 인식은 입시위주의 경쟁교육 속에서 공교육보다 사교육을, 인성보다 성적을 중시하는 사회 풍토 속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원인을 이렇게만 단정짓기엔 2% 부족하다. 전반적인 교권의 추락에도 여전히 학생들로부터 존경받고 감사를 받는 스승들은 존재한다. 그들의 공통점은 제자들에 대한 사랑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학생들을 단순히 자신의 문벌이로 생각하는 교사를 존경할 학생은 없다. 존경은 교사라는 자리로 받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에 걸맞은 인격과 성품이 뒷받침 됐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다.

‘군사부일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자성어다. 스승은 지식을 가르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다. 부모처럼 제자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하며, 권위를 세우기도 하지만 전적으로 제자의 편이 될 때도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스승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감사를 받는 것임을 다시 한 번 기억해

· 자격 : 외대인(교수, 학생, 직원모두) · 주제 : 제한 없음 · 매수 : 200자 원고지 3매 내외 · 투고방법 : 전자우편 hufspres@hanmail.net

비둘기 칠판

외대학보가 묻습니다
젊음의 대학축제, 함께하면 더 즐거운
사랑은 누구인가요?

■ 서울배움터
수업시간에는 인사도 하고 대화도 나누지만 강의실 밖에선 잘 만나지 않는 같은 수업 수강생들. 축제기간을 통해 친해지고 싶어요.
김지은(서양어 · 프랑스어 09)

■ 글로벌캠퍼스
얼굴도 예쁘고 노래도 잘 부르고 성격도 좋은 것 같은 가수 윤희. 선배님, 같이 놀아요.
최준영(통번역 · 태국어 07)

지난 축제 때는 같이 있지 못했지만 이번엔 꼭 여자친구와 함께하고 싶네요. 비록 여자친구는 졸업했지만^^
김덕현(자연 · 전자물리 09)

외대학보

www.oedaehagbo.com

창간 1955년 4월 11일
발행인 박철
편집인 겸 주간 전종섭
편집장 오유진 부장 서상아 신혜지 조인우
차장 강유나 문나운 안지혜 우보연 이은수 홍규원
조교 김병호 이현주
제작 (주)경보기획 인쇄 중앙일보
학생기자실 (서울) 09)2173-2504 / 02)2173-2505(F)
(글로벌)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외대로 81
트위터 @hufspres1955

외대학보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외대학보는 언제나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및 사회·문화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학내 구성원이라면 주저 없이 외대학보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독자 기고란
· 홈페이지의 소리(교원) · 흡산의 소리(학생) · 동문의 소리(동문)
· 지난호를 말하다

◆기사 제보 및 기고 주실 곳
· 전자우편 hufspres@hanmail.net
· (서울) 09)2173-2504 (용인) 031)330-4112
· 학생기자실 (서울) 신학생회관 401호 (용인) 학생회관 212호
· 편집장 오유진(어문 · 그물어 10) 82yuujin@hufs.ac.kr
· 보내주시는 기사제보는 신문의 편집 계획에 따라 실리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십자말풀이

“학보를 꼼꼼히 읽으면 답이 보인다”

①						③					
①											
									④		
			②								
②									④		⑤
											⑤

■ 가로열쇠
① 2003년 이후 매년 여름방학기간에 진행되는 세계 유명 교수들의 강의 및 외국인 교환학생들과의 문화교류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2면 참조)
② 1986년에 초연된 사회풍자 블랙코미디 연극. 이번 해 재연 중이다. (8면 참조)
③ 서울배움터 기숙사의 영어 명칭. (3면 참조)
④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 (12면 참조)
⑤ 주로 여름에 야외에서 열리는 록 음악 중심의 음악축제. 서울배움터 대동제의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6면 참조)

■ 세로열쇠
① 고속도로에서는 100km/h, 일반도로에서는 60km/h,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30km/h (1면 참조)
② 공연이나 연설 등에 감동받아 일어나서 치는 박수.
③ 글로벌캠퍼스 왕산제전의 새로운 이름. (3면 참조)
④ 뜻밖에 당하는 불행이나 재앙 따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⑤ 000외대. 서울배움터 웰스부가 매년 대동제에 하는 행사. (6면 참조)

■ 정답 십자말 풀이를 이름과 연락처와 함께 학보사로 가져오시면 추첨을 통해 3명에게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단, 하나라도 틀릴 경우 상품을 드리지 않습니다.

<스승의 날 특별 인터뷰>

“단순한 제자가 아닙니다. 제 아들, 딸입니다”

스승의 날을 맞으면 새록새록 떠오르는 은사님이 있다. 초등학교 시절 짝사랑했던 선생님, 밤늦게까지 공부할 때면 캔 커피를 돌리며 격려해주셨던 고등학교 선생님, 그리고 지금 우리학교에서 우리들을 가르치시는 교수님들. 그중에서도 유달리 제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교수님이 있다. 우리학교 교수 중 '베스트 티처 상(Best Teacher Award)' 최다 수상자이자 (2004~2009 연속수상) '최고 연구업적 상' 최다 수상자(2000~2009 연속수상, 2011년)인 영어대학 영어학과와 이성하 교수님을 만나 그의 제자 사랑을 들어보자.

편집자주



들었다. 학생들을 진심으로 믿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 학생들을 보며 어쩌면 학생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내가 가르친 방식이 그 학생의 공부 방식과 맞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학생들이 엉뚱한 질문을 할 때도 그는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는다. 분명 그런 질문을 하게 된 데에는 자신의 강의가 영향을 끼쳤으리라 생각하는 것이다. 말 그대로 학생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다. 여기에 이성하 교수는 어떤 경우에도 지키는 것이 하나 또 있다고 덧붙였다.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가르침 받는 사람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학생이라면 어떤 강의를 원할지, 어떤 교수

될 것”이라 강조했다. **◆업무와 연구, 두 마리 토끼를 잡다** 2010년 교단을 잠시 떠난 이성하 교수가 일하게 된 곳은 교무처였다. 그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배움터 교무처장으로서 활동하면서 학교에 많은 봉사를 했다. 우리학교 교수들의 채용, 승진 등을 비롯한 인사관리와 학생들의 모든 학사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일이었다. 우리학교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곳이었지만 그만큼 업무량이 많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특히 대학평가를 통해 대학간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대학 연구력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 고민의 결과물이 바로 2010

것으로 끝내지 않고 매일 업무가 시작되기 전의 새벽을 활용해 자신이 연구해 온 결과물을 가지고 A&HCI(Arts and Humanities Citation Index)급의 국제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는 국내 언어학 전공 교수 중에서도 소수만이 가능했던 업적이다. 그는 “다른 교수님들도 밤낮으로 연구에 매진하시는데 그래도 연구력 강화 방안을 주관한 부처장이 논문 한 편이라도 써야 체면이 서지 않겠냐”며 씩스럽게 웃었다. 이성하 교수가 발표한 논문은 한국어 및 외국어에 나타난 언어 현상 중 ‘생략현상’에 초점을 맞춘 내용이다. 문법화*의 관점에서 볼 때 ‘If only you were here how happy I would be’라는 문장은 조건문이지만 뒷 절인 ‘how happy I would be’가 생략되면 성격이 기원문으로 바뀐다. 그는 “쉽게 말해서 ‘~하니까...하다’는 말은 이유를 나타내는 문장이죠? 하지만 뒤쪽의 ‘...하다’라는 주절이 생략되면 문장 전체의 기능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너 참 웃기다니까!’ 라는 말은 이유를 나타내려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학교의 ‘베스트 티처’를 소개합니다
“아이구 이거 쑥스러워... 다른 훌륭한 교수님들도 많은데.” 연구실 여기저기에 화사하게 놓여있는 카네이션 사이로 이성하 교수의 웃는 얼굴이 보였다. 꽃이 참 예쁘다는 말에 그는 사랑하는 제자들 선물이라며 “꽃보다 찾아와주는 제자들 얼굴이 더 예쁘다”고 답했다. 이성하 교수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참 행복했다며 지난 일을 회상했다.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쳤지만 그 중에서도 유달리 어미닭을 따라가는 병아리처럼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있었다. “한번은 제자 두 명이 누가 제 강의를 많이 듣는지 서로 내기하는 것도 봤어요. 결국 여섯 개 넘는 강의를 듣는 제자들 덕에 납모르게 웃곤 했지요.” 각자의 능력을 펼치는 제자들이 간간이 소식을 보내오기도 했다. 그의 강의를 들은 후 영어학에 더욱 몰입하게 된 제자들도 있고 상담을 통해 자신의 꿈을 찾게 된 제자들도 있었다. 이 모두가 이성하 교수의 자랑이었지만, 그가 애뜻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제자들은 따로 있었다. 바로 힘든 가정형편 때문에 어렵게 학업을 이어나가는 학생들이다. 그 자신도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학업에만 집중하기 힘들 때가 있었기 때문이다. “제자를 앞에 두고 상담을 할 때 마다 가슴이 찢힐 때가 많아요. 대학 졸업하고 미국 유학을 갔을 땐 학비, 생활비를 벌려고 정말 닦치는 대로 일을 했죠. 그때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서 등 록금 때문에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제자들을 이해하고 지켜보다보니 단순한 제자가 아니라 제 아들, 딸처럼 느껴져요.” 이성하 교수의 목소리에 학생들을 야끼는 감정이 고스란히 묻어났다.

“신뢰와 이해는 교육자로서의 신조”
분명 한 학교에서 연속으로 ‘베스트 티처 상(Best Teacher Award)’을 가장 많이 수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비결이나 집착되는 이유가 있느냐는 물음에 이성하 교수는 웃으며 “그런 건 없지만 나 자신과 약속한 신조는 있다”고 밝혔다. “저도 처음 강의를 시작할 적엔 학생들이 바로 지난 시간에 가르친 개념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거나 제출한 과제가 엉망인 것을 보면서 많이 실망도 했고 우울했지요.” 하지만 그는 그런 상황을 뒤집어서 받아

담당교수의 명예 서약

나는 2012학년도 1학기 [영어학개론(1)] 강의에 임하면서 내 학생들과 동료들과 나 자신 앞에 다음과 같이 약속한다.

1. 나는 이 강의에 최선을 다하겠다.
2. 나는 강의에 지각하거나 결강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결강 시에는 반드시 보강을 하겠다.
3. 나는 지난해보다 논문을 한 편 더 학술지에 게재하거나 국제/국내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겠다.
4. 나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학생을 면담하고 상담하겠다.
5. 나는 학계와 지역사회에 좀 더 많이 봉사하겠다.

학생의 명예 서약

나는 명예로운 지성인으로서 2012학년도 1학기 영어학개론(1) 강의를 수강하면서 담당교수, 동료들, 그리고 나 자신 앞에 다음과 같이 약속한다.

1. 나는 이 강의에서 내 최선을 다해 공부하겠다.
2. 나는 이 강의에 결석과 지각을 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3. 나는 이 강의의 모든 숙제를 정직하게 작성하고, 퀴즈와 시험을 정직하게 치르겠다.
4. 나는 내 동료들이 학문적으로 부정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 반드시 교수에게 알리겠다.
5. 나는 지난 학기보다 전체 성적을 평점 0.5/0.3 이상 올리도록 노력하겠다.

▲ 이성하 교수가 담당하는 영어학개론 수업 첫 시간 과제로 학생과 교수가 함께 명예서약을 했다.

님을 좋아할지 고민하지요. 학생의 혼란이 적도록 강의 일정을 자세하게 공개하고 과제도 몇 주 전부터 공지합니다. 최대한 학생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수업과 관련된 자료도 항상 이클래스(e-class)에 올리구요. 모든 학생을 한 학기에 한 번씩 상담할 수 있도록 노력해요.” 학생의 눈높이에 맞춰 진행되는 학

“지성인으로서의 명예가 제일 중요해”
생의, 학생을 위한 강의인 셈이다. 이런 이성하 교수에게는 그가 꿈꾸는 교육환경이 있다. 학생은 자신의 명예를 스스로 지키고 교수는 이를 존중하는 환경이다. 그는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을 예로 들었다. 스탠포드 대학에서는 시험을 칠 때 교수가 감독하지 않는다. 오히려 교수가 강의실에서 나가지 않으면 학생이 “교수가 나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항의한다. 지식인으로서 양심을 걸고 시험을 치기에 시험 시간에 ‘감시’를 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성하 교수는 이런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든 강의마다 첫 시간에 ‘학생들의 명예서약(Pledge of Honor)’을 실시한다. “나는 명예로운 지성인으로서 정직하게 공부하겠다”는 학생의 서약과 “나는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가르치겠다”는 교수의 서약이 함께 발표된다. 그는 “교수와 제자가 서로의 명예를 지키는 강의를 만들어나가고 싶다”며 “지성인으로서의 명예가 국제사회에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이

년 2학기부터 실시된 ‘연구력 강화 방안’이었다. “교수에 대한 세 가지 평가 중 하나인 ‘연구’를 자세히 살펴 교수들의 인사관리를 꼼꼼하게 했고 교수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셨어요. 그렇게 연구력 강화 방안이 추진된 후 실시된 대학평가에서 교수 연구 지표나 연구력이 크게 상승해 많은 보람을 느꼈어요.” 하지만 이성하 교수는 연구력 강화 방안을 실시한

“제자들과의 연구, 끝까지 함께 하고 싶어”
자체로 문장이 종결되고 뜻이 강화되는 것”이라 자세하게 설명했다. 이성하 교수는 교무처장으로서의 활동을 마치고 올해 다시 교단으로 복귀했다. 앞으로의 계획을 묻자 그는 “이제 다시 학생들에게 집중하고 싶다”고 말했다. 현재 제자들은 그와 함께 연구하며 실력을 쌓고 이번 달 4일부터 6일까지 대만에서 열렸던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하고 여름에 열리는 세 개의 국제학술회의에서도 발표를 준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성하 교수는 “이제 영어학에 입문하는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는 것은 물론이고, 대학원에서 저를 지도교수로 두고 연구하는 제자들과 조교로 일하는 제자들 모두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 싶어요”라며 소망을 드러냈다. 그의 제자 사랑이 그의 열정만큼이나 끝까지 타오르길 바란다.

글 강유나 기자 84yoonah@hufs.ac.kr

***문법화**
어휘적인 의미를 갖추고 있는 언어형태가 문법적인 기능을 가진 형태로 변화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것



▲ 개교 58주년 기념행사에서 우수교원상 (교원 업적평가 결과 우수교원을 수상한 이성하 교수가 제자들과 함께 환한 웃음을 짓고 있다.